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필통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추구합니다!

- ▶▶ [이달의인물] 필통 학생기자단 대표-부대표 박승민, 류채영 기자
- ▶▶ [청소년뉴스] 청소년도 심각한 '차별' 느낀다
19세 이상 NO 청소년전용 문물자판기 등장
- ▶▶ [학교소식] 진양고등학교, 혁신도시로 이설
진주교육지원청 제30대 정명규 교육장 취임
경남과학고,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국가대표 선발
진주 항공과학고 3남매 졸업생 탄생
- ▶▶ [긴급 설문조사]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 ▶▶ [특별기획] 필통 진주 청소년 의식조사
- ▶▶ [이슈&이슈] 왜, 선거는 19금인가?
- ▶▶ [GO발! 이의있습니다①] 학교의 두발규제
- ▶▶ [GO발! 이의있습니다②] 동아리 활동도 교육이다
- ▶▶ [타요?타요!] 진주시 시내버스 여행
- ▶▶ [필통에게 물어봐] 궁금증 FACTCHECK
- ▶▶ [학교VS학교] 진주고등학교 VS 진주여자고등학교
- ▶▶ [진주 역사투어] 진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국보가 있다는데!

- ▶▶ [JOB을 잡아라] 플로리스트 비텔의화원 임수진대표를 만나다
- ▶▶ [동아리탐방] 대아고등학교 방송부 DABS
- ▶▶ [19금을 찾아서] 담배는 19금? 담배사러 갑니다!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교이야기]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찾아서
- ▶▶ [알림] 청소년단체 J.S.E.I.
- ▶▶ [현장취재] '위안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 ▶▶ [핫플레이스] 가상현실 체험! 진주 VR랜드를 가다
- ▶▶ [취재수첩] 선배와 후배사이에는 군기보다 존중이 필요하다
용돈? 부족해! 항상 부족해!
연암도서관, 난 고양이 만나러 간다
그렇게 일찍 학교를 가야 하나요?
제2 외국어 선택? 답은 정해져 있어!
너 가방 어디꺼니? 얼마짜리야?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등 2명/ 2등 18명 추첨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 하얀피부과
- 하얀성형외과
- 하얀소아청소년과
-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7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필통 학생기자단 대표-부대표를 만나다

2017 필통기자단을 이끄는 박승민, 류채영 기자



Q. 간단한 자기 소개?

▶승민 : 안녕하세요, 진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필통 기자단 학생대표 박승민입니다.

▶채영 : 부대표를 맡게 된 진양고등학교 2학년 류채영입니다! 필통은 작년 여름 추가모집 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Q. 필통 학생기자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궁금?

▶승민 : 중학생때 부터 학교에서 필통신문이 오면 유심히 보곤 했어요. 외부에서 보는 필통이 너무 멋져 보이기도 했고, 필통신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상상도 여러 번 했어요. 사실 처음 지원할 때는 아무생각 없이 멋있어 보여서 지원을 했어요.

▶채영 : 글쓰는 것을 취미라고 말할 만큼 좋아합니다.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 중 필통이 학생들로 구성됐다는 걸 알게 됐죠. 정기모집은 접수시기를 놓쳐서 추가모집 때 겨우 들어오게 됐네요.

Q. 필통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승민 : 선배님들이 참 좋다. 대표님이 말을 잘 한다. 그냥 느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좋은 분



들이구나.'

▶채영 : 면접을 보러간 날 시끌시끌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기자단 대표님이 면접관 중 한명이었는데 면접내내 재밌었던 건 같아요!

Q. 필통기자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승민 : 필통기자는 현재는 고등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주된 활동은 매월 직접 취재하고 만든 신문을 발행하는 것인데 필통이 우리나라에서 유일 무이한 청소년신문입니다. 진주밖에 없죠. 또 청소년 팟캐스트방송도 제작하고 멘토스쿨이라는 행사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합니다. 기자들은 매주 편집회의도 하지만 스크랩 발표, 토론, 3분스피치, 다큐감상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채영 :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힘든 것 같잖아요. 기자단은 아유회도 가고 방학 때면 즐거운 MT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인 회식도 하구요. 노는 것도 열심히죠.^^

Q. 일반 기자로서의 필통과 대표로서의 필통은 다를 것 같은데?

▶승민 : 기자로만 있으면 기사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대표가 되니 필통을 위에서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기자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친구들의 성격은 어떤지, 또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표현되는지는 모르겠네요.

Q. 필통활동에서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채영 : 즐거웠던 날이라고 물으면 엠티요!!라고 답할 텐데 즐거웠던 일이라... 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필통에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늘 생각해요. 힘들었던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밌게만 활동해서.. 있다면 기사 마감시간 지키기

정도?! ㅋㅋㅋㅋ

Q. 공부와 필통과 같은 다른 비슷한 활동을 모두 잘하는 법이 있나요?

▶승민 : 사실 우리는 노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무의식 상에 존재하는 노는 시간을 제대로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저도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 노는 시간들을 필통에 할애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로는 정말 쉬워요. 실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본인의 담당범위를 늘리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공부는 막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팀이 살고 공부법이 확립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고요.

Q. 필통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채영 : 지난 3월 1일, 평화 기림상 제막식에서 청소년 대표로 편지를 읽었어요. 필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못해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며칠 전에 길에서 제 글이 감동적이었다며 얼굴을 기억한다

는 분을 만났는데 썩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애 바라던 소통이란 게 진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앞에 나선다는 게 힘들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값지다면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다 해보려고요!

Q. 필통기자의 필수조건은?

▶승민 : 그저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왔더라고 필통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자체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필통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필통기자단 활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면 필통기자단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채영 : 필통기자는 글쓰기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이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동의하는 얘기고요. 하나만 추가하자면 책임감. 시작한 일을 끝이 있어야하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필통은 청소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Feel Tong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필통의 주요 사업

진주청소년신문 FeelTong

-필통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신문으로 때론 언론으로, 때론 청소년들의 대변자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포털 FeelTong 홈페이지

-필통신문의 기사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정보들을 제공하고 페이스북등 SNS로도 소통합니다.

필통 청소년멘토스쿨

정기적으로 지역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멘토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하고 제작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은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우리 사회와 소통합니다.

청소년 신고센터 FeelTong

학교폭력, 성폭력, 왕따등의 청소년문제를 그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연예술 기획 사업

공연문화에 소외된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작품을 큰 비용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봉사프로그램, 필통장학회

장기적으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제전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실질적인 장학사업도 진행합니다.

What? FeelTong

지역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문제를 풀어내고 청소년들이 가지는 상대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통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작은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통은 이러한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Mean? FeelTong

하나, 영어로 FeelTong

Feel은 느낌 감성, Tong은 '무엇을 꼬집어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감성들을 표현해 내고 꼬집어내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둘, 한자로 必通

반드시必자에 통할 通자, '반드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커뮤니티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

셋, 우리말 그대로 '필통'

청소년들의 필수품인 학습용품 필통. 필통에는 연필, 칼, 지우개등의 너무도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필통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청소년들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청소년도 심각한 ‘차별’ 느낀다 중학생은 ‘외모’ 고등학생은?

국내 고등학생은 ‘성적’ 차별을, 중학생은 ‘외모’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월23일 발표한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450명을 대상으로 1(전혀 심각하지 않음)~4(매우 심각함)까지 4점 척도로 차별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은 학업성적(3.08), 학력·학벌(2.98), 외모(2.95) 등을 차별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중학생은 외모(2.76)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학업성적(2.75), 장애(2.66)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장애(2.23), 외모(2.18), 학업성적(2.04) 순이었다.



‘실제로 자신이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있냐’고 묻자 가장 많은 13.1%가 ‘외모차별을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경험은 고등학생 16.0%, 중학생 13.6%, 초등학생 8.4% 등 나이가 들수록 두드러졌다. 반면 나이(6.8%), 장애(6.5%), 학업성적(5.9%), 성별(5.9%) 등으로 차별한 경험은 외모 차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차별 당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17.9%가 ‘학업 성적 차별을 당해봤다’고 답했다. 고교생은 27.5%, 중학생은 18.3%, 초등학생은 4.7%가 성적 차별을 당해봤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4%가 차별을 당하고 나서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가족 지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2.3%에 불과했다. 연구원 측은 “청소년들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 당했을 때 부당함을 알고 이를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고생 흡연율, 5년새 절반으로 뚝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100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이었던 청소년 흡연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1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지난해 6.3%를 기록했다. 청소년은 남녀 중·고교생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서울 청소년의 흡연율은 11.2%에서 5.8%로 절반 정도 낮아졌다.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한국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9.6%, 여학생 2.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년별로는 고등학생(남 14.7%, 여 3.8%)이 중학생(남 3.5%, 여 1.3%)보다 높다. 특히 고3 남학생은 5명 중 1명꼴(19.1%)로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 흡연 경험률’도 남학생이 더 높았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고교 남학생이 19.5%, 여학생은 7.4%에 달했다.

키 줄어든 고교생, 몸무게는 늘었다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잔다. 운동도 못 한다. 키는 멈췄고 몸무게는 조금 늘었다. 눈이 몹시 나쁘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신체건강 상태다. 특히 여고생에게 비만과 키 같은 체격과 운동 및 수면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많았다. 교육부는 2월22일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765개 표본 학교 학생 8만2883명의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조사 결과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및 고교 1학년 학생 2만767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국내 고등학생의 키는 남녀 모두 정체 상태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다. 고3 남학생의 평균 키는 3년째 173.5cm로 2006년 174.0cm보다 줄었다. 고3 여학생 역시 평균 키가 3년째 160.9cm로, 2006년 161.1cm보다 작아졌다.

다만 남녀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키는 꾸준히 커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키는 152.1cm, 여학생의 키는 152.3cm를 기록했다. 10년 전보다 각각 1.3cm, 2.1cm씩 커진 것이다.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cm로 10년 전보다 1.3cm 컸다. 체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였다.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초등학교 6학년이 48.2kg, 중3이 63.7kg, 고3이 70kg이었다. 여학생은 초6이 45.5kg, 중3이 54.4kg, 고3이 57.2kg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9년 전인 2007년(11.6%)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의 경우 눈에 띄는 점은 초·중·고교 모두에서 도시보다 농어촌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았다는 것. 초등학교로 갈수록 농촌 간 비만율 격차가 컸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여고생들로, 21.8%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5.3%포인트나 높았다. 건강상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은 시력 이상(맨눈으로 0.7 이하)이다. 시력 이상 학생은 전체의 55.7%로, 초1은 25.7%, 초4는 47.6%, 중1은 67.8%, 고1은 74.1%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성경험 있는 청소년 48%만 피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절반 이상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통신위원회가 2013~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청소년 21만 2538명의 성관계 경험률은 5~5.3%였다. 남학생은 7~7.4%, 여학생은 2.8~3.1%였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12.8~13.2세였다.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0.2%는 임신을 했고, 임신한 여학생의 66.1~73.6%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였다. 2013년은 39%였다. 미국 15~19세 여학생의 피임 실천율은 98.9%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은 콘돔(69.3%)이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관계 시작 나이가 12세로 빨라진 현실을 감안하여 성교육 시작 시기도 앞

19세 이상 NO 청소년전용 콘돔자판기 등장

2014년 문을 연 사회적 기업 ㈜인스팅터스는 피임기구인 콘돔과 성기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다. 건전한 성관계를 위한 ‘성헬스케어’를 표방하며 청소년 대상 콘돔 무료 배포사업을 펼쳤던 이 회사가 최근 또 이색사업을 시작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설치한 것.



현재 서울 신논현역 이태원, 광주 중장로의 성인용품점에 3대, 충남 홍성의 청소년 전용 만화방에 1대 등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를 붙이고, 점주들은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당 1400원인 친환경소재 콘돔을 2개들이 세트 100원이라는 엄가에 판매해 제법 인기가 좋다. 매일 20여 세트가 팔리며 판매된 돈은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는봄’에 전액 기부된다.

정부가 청소년 성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절반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기구 구매를 꺼려 비닐봉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 이에 따라 청소년 성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피임기구의 사용을 적극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제품을 팔기 위한 콘돔회사의 상술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함께 자칫 피임기구를 장려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청소년 알바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월8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25.8%가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꼴인 24.9%만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18.1%로 전체 중·고생의 11.3%로 나타났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6.9%), ‘패스트푸드점(피자·치킨)’(6.1%), ‘편의점’(5.5%)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에 달했다.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 경우(65.8%)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뒀다’는 응답이 21.1%였다.

당기고, 원치 않는 관계를 거절하는 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폐렴, 중·고생은 위장염 주의

지난해 초·중·고교생은 식중독·소화불량 등 위장염 때문에 가장 많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 저학년에선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가 제일 많았다. 3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중 5만1771명이 위장염·결장(대장)염으로 입원했다. 이어 폐렴(2만7690명), 독감·맹장염·감기(급성 기관지염) 순이었다. 외래진료 사유로는 감기(269만1627명)가 가장 많고, 다음은 치아 발육 문제(125만9287명)였다. 비염, 충치, 급성 편도염, 시력문제로 병원을 찾은 학생도 각각 100만명이 넘었다. 나이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차이가 났다. 입원 환자 중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폐렴 환자(1만5128명)가 가장 많았다. 이 학년에선 상위 10대 질병 중 7개가 호흡기 질환이었다.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많았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생의 입원 사유 1위는 모두 위장염·결장염이다. 중·고생들이 입원 진료를 많이 받은 질병은 기흉(폐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과 치핵(치질의 일종)이다. 기흉은 골격과 폐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생긴다. 청소년기 흡연도 원인이 된다. 치핵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중3 이후 급증했다.

심의를 통과한 게 믿기지 않는 걸그룹 안무



걸그룹 BP라니아의 선정적인 안무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3월2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한 BP라니아는 신곡 ‘Make Me Ah!’의 무대를 공개했다. 음악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은 15세 이상 관람가다. 즉 방송에 적합하려면 15세 이상 관람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니아는 핑퍼짐한 블라우스에 핫팬츠와 니삭스를 매치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무대 초반부터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섹시미를 과시했다. 그러나 가장 후련구의 선정적인 안무가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블라우스를 들어 올리며 얼굴을 가리는 포즈를 하면서 상체의 속살이 노출됐다. 웬만한 속바지보다 짧은 바지를 입은 채로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 앉는 춤은 19금 수위에 가깝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춤이 심의에 통과된 것이 맞냐” “본인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청소년이 보는 프로그램에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안학교에 음악·영화고까지… 경남교육 ‘새 장’ 열었다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개교해

공립대안학교에 이어 영화와 음악고등학교까지, 경남지역 정규교육에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소규모 학교를 활용해 지역공동화도 막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경남 최초 공립 기숙형 체형 위주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물로 경남고성음악고와 밀양영화고가 3월 개교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음악이 흐르는 경남고성음악고= 전국 최초이자 도내 유일한 음악전문 고등학교인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교장 안진수)는 지난 3월6일 첫 입학식을 가졌다. 첫 입학식인 만큼 30명의 학생과 고성교육지원청 유승규 교육장과 경남도의회 황대열 의원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장과 중학교장,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는 오전에는 정규교과수업을 받고 오후나 금요일 등에 집중적으로 전공파트를 공부한다. 전공분야는 보컬, 서양성악, 기타, 실용작곡,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호른, 국악, 성악, 해금, 드럼, 비순 등 다양하다.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는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옛)하일중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6학급 90명 정원이다.

◆영화 꿈나무의 산실 밀양영화고= 밀양영화고등학교는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있던 폐교(옛 상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 2개 학급에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지난 7일 교내 소극장에서 첫 입학식을 가졌다. 밀양영화고는 도내 전역에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30명의 신입생들이 연기, 연출, 시나리오 작업, 촬영기술뿐 아니라 분장까지 연극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영상예술교육 위주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영화중점형 체험학교’로 운영될 밀양영화고등학교는 경남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성학교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영화 인재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어떻게 입학하나= 전형 유형은 교육다양성 전형(정원의 70%), 사회통합 전형(정원의 30%), 기타 전형(국가유공자 자녀 및 특례입학대상자, 정원 외 3%)이 있다. 서류전형(자기소개서 60%, 학업성적 30%,추천서 10%)과 심층면접 및 실기평가(음악)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경남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1조 지출

지난해 도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조 97억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고 학생 1인당 월 평균은 20만 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 경기(5조 1832억원), 서울(4조 1263억원), 부산(1조 567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이는 2015년 1조 177억원보다는 0.8%(80억원) 줄어든 수치이다.

도내 각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547억원, 중학교 2646억원, 고등학교 2903억원으로 집계돼 초·중·고 학생 학부모가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 9000원으로 전국에서 11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이 22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학생 20만 4000원, 고등학생 20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65.2%로 2015년(66.9)보다 1.7% 떨어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8.4%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60%, 고등학교 49%로 집계됐다. 총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2008~2009년(20조 9000억원~21조 6000억원)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사교육비 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 학생 수도 전년 대비 3.4% 줄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비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도내 국정교과서 신청학교 5곳 중 3곳 취소

경남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과 참고용 또는 도서관 비치용으로 쓰겠다고 신청한 학교 5곳 가운데 3곳이 신청을 취소했다고 3월9일 밝혔다. 신청을 취소한 학교는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홈페이지에 국정교과서가 e-book으로 탑재돼 있어 굳이 인쇄본을 비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역사 수업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도서관 비치용으로, 또는 교사들이 국정교과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부분은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신청한 학교 명단은 피해 발생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6년 5·9월 전국 1천483개 초·중·고
학부모 4만3천명 대상 조사 결과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장취재] ‘위안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진주 위안부 ‘평화기림상’ 시민들 성금으로 세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3월1일 진주시교육지원청에서 평화기림상 제막식을 가졌다. 평화기림상은 단발머리에 살짝 돌린 얼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원치 않는 삶을 산 것을 뜻함), 꼭 천 주먹(일본의 사죄를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굳은 의지), 왼손의 새(평화를 바라는 염원)를 가진 형태로 만들어 졌다.

평화기림상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진주시민 약 4200여명이 참여해 7800만여원의 건립기금을 마련해 세워 졌다. 서도성 상임대표는 “평화기림상으로 한 이유는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는길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부 돌아가신다고 위안부 문제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제막식 행사중 청소년 편지글 낭독

“할머니 건강하세요.
일본이 진정 사과할때까지
저희도 함께 할게요.”

사람들을 괴롭히던 추운 겨울이 가고, 싱그러운 봄새와 파스한 햇살이 가득한 봄이 왔네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 가는데 할머니들의 시간은 아직 그 자리, 시리고 아픈 겨울에 멈춰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네요. 할머니들이 겪었을 아픔을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열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적어봅니다.

뛰어난 글 솜씨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제 감정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봐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이 고작 제 나이에 또래에 평범한 10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알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큰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봄이었던 소녀들의 삶에 시커먼 재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니 속상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직접 겪으신 할머니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픔을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늘 그리워하던 고향에 힘들게 돌아왔는데도 축하를 받기보다는 파기운 시선들에 힘드셨겠죠. 굵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위사람들이 무성기만 했을 것 같아요. 상처 난 마음이 조국에서 낯지 않고 더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모두에게 위로 받고 사랑받아야했던 소녀들에게 다시 큰 상처를 남겨버린 꼴이 라니,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설명하는 것이, 그 전에 그런 사실을 밝히



는 일 자체가 겁나고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아팠던 역사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본인의 이름을 감수하고 고백하신 할머니들이 대단해보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할머니들의 존엄성,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타인이 사과 받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상처받은 할머니들이 사과 받고, 진정으로 용서해야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동의 없는 합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사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을 결정한 정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무대책속에 평생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무지개다리를 건너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할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대주세요. 일본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무더지도록, 기억 속에서 잊혀 지도록 말이에요.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사셔서 꼭 사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기다려야 하는 약자의 위치지만 그 뒤에 서서 함께 꼭 자리를 지킬게요. 사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아픔까지 함께 나눌게요. 저는 할머니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일, 기쁜 날 기쁜 행사에서 진양고등학교 재학생 류채영 올림

진양고등학교, 혁신도시로 이설 ... 평준화지역 적용



경남 진양고등학교는 기존 문산읍에 소재한 학교를 올해 3월 혁신도시로 이설해 미래형 학교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설 전 한 학년당 6학급 규모에서 올해 신입생부터 9개 학급으로 증설되었고, 지금까지 비평준화지역 학교에서 진주시 평준화지역 적용 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진양고는 3월 1일부터 자율형공립고로 재지정 돼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초빙,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외체험문화탐방 기회부여, 다양한 장학제도,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 첨단교육기자재 구축, 차량(스쿨버스)운영 등을 통해 학교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동문, 지역민들도 혁신도시로의 학교 이설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로의 제도약을 바라보고 있다.

경남과학고,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국가대표 선발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지난 3월7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열린 제68회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경남과학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출전권을 따내는 경사를 맞았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들을 선발하는 대회로 올해 68회를 맞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ISEF에 최종적으로 출전하게 된 학생은 경남과학고 2학년 신유환, 이준혁, 한승목 등 3명으로, 영문 PT 심사를 거쳐 인텔 ISEF에 최종 출전하게 됐다.

진주고 축구부 올시즌 선전기원 다짐대회 열려



진주고등학교는 3월15일 학교 체육관에서 '2017 시즌 축구부 선전기원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17년도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경기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선수 소개와 학생 회장 격려문 낭독, 교장 격려사, 격려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원(3학년) 진주고 축구부 선수대표는 "출전식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승전을 치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승리해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명신고 통합경남회장기 검도대회 우승

지난 3월11~12일 이틀간 거제시 거제실내체육관에서 경남검도회가 주최하고 거제시검도회가 주관한 '제1회 통합경남회장기 검도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진주 명신고가 김해 영운고를 꺾고 고등1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고등1부 개인전에서는 마산가포고 김예찬이 박형우(영운고)를 누르고 정상에 등극했고, 하성훈(명신고), 홍대범(마산가포고)이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진주남중 바른 인성 함양 도서 기증

진주남중학교는 지난 3월14일, 다락 도서관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전 학생들에게 '어린왕자 멘토 이야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를 기증하는 식을 가졌다. 교육법인 국제사회교육재단에서 기획한 이 후원 행사는 한그루 출판사(주) 배승호 대표가 도서 800권을 기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학교생활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진주중 故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 장학금 전달

진주중학교가 지난 3월14일 '버스노동자 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 장학금을 재학생 10명에게 전달했다. '버스노동자 정태봉 열사 추모 장학회'는 버스노동자들에 의해 온 故정태봉(진주중 21회)씨가 시민 버스 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10년 전 운명을 달리하면서 함께 일해 온 버스 노동자들이 매월 일일액의 성금을 모으면서 설립됐다. 장학회는 故정태봉 열사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모교인 진주중학교에 연 500만원씩 영구히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주시 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회 열려

진주시는 지난 2월17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2016~2017 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소년동아리 연합발표회는 2016년 한해 동안 청소년수련관 동아리활동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와 함께 동아리 선배들이 무대공연을 스스로 준비해 후배들에게 동아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당부하는 만남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사전 안전교육, 개회식, 청소년동아리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15개 팀이 참여해 댄스, 밴드, 노래, 마술 등 개별 동아리 공연 발표와 함께 각 동아리 대표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댄스 연합팀으로 구성된 액틴의 특별공연도 펼쳐져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진주교육지원청 제30대 정명규 교육장 취임



진주교육지원청은 3월2일 오전 10시 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관계자 및 진주교육지원청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 정명규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정명규 교육장은 경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삼가고등학교, 초계종합고등학교에서 교사, 의령중학교 교감,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를 거쳐 합천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의령고등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했다.

정명규 교육장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열정과 인화이며, 열정과 교직원 간 양보와 배려 문화 없이는 교육의 작은 부분도 바꿀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 본질의 회복과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이 함께 가꾸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했다.

진주 항공과학고 3남매 졸업생 탄생

항공과학고 최초로 보라매 3남매가 탄생했다. 2월23일 진주 항공과학고등학교 제46기 졸업식 및 임관식이 공공교육사령부에 열렸다. 지난 2014년 항공과학고에 입학한 144명의 학생들이 이날 졸업과 함께 신임 부사관으로 임명된 가운데 오빠, 언니에 이어 항공과학고를 졸업한 박수영 하사(20·항공전자전장비정비)가 눈길을 끌었다.



수석 입학에 이어 수석 졸업의 영예까지 차지한 박수영 하사는 항공과학고에 먼저 입학한 오빠 박준영 중사(24·항공과학고 42기·20전투비행단 근무)와 언니 박보영 하사(22·항공과학고 44기·11전투비행단 근무)의 영향으로 항공과학고에 입학했다.

항공과학고에 수석 입학한 박 하사는 3년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했고 그 결과 국방부장관상을 목에 걸고 졸업식과 임관식에서 오빠, 언니와 재회했다.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창의성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해 같은 취미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인 자기주도적인 자치기구로 2016년에는 5개 분야 26개 동아리 350여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했다.

봉원중 '파이(π)의 날'을 아시나요

진주 봉원중학교는 지난 3월1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학교과실에서 '파이(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 '파이의 날', 또는 '원주율의 날'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선교사인 자르투가 세계 최초로 원 둘레와 지름 간의 길이의 비율인 원주율 3.14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이 날이 되면 π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통해 원주율을 축하하고 있다. 진주봉원중에서는 2016년부터 '파이(π)의 날' 기념 행사를 시작하여 올해 2회째 행사를 가졌는데, 올해는 행사명을 'Happy Pi-day To You'로 짓고, 학생들이 π를 생각하고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경해여중 평거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진주 경해여자중학교 학생회가 지난 2월1일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선행사 기금과 학교 축제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후원금 119만 5860원을 전달했다. 윤치효 교장은 "작년에도 평거복지관에 후원금을 기탁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나눔을 실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후원금 역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평거복지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동명중, 필리핀에 의류 650장 기부

진주동명중학교는 전교생으로부터 필리핀 수해 지역에 보낼 여름옷 상·하의 650여 장을 기부받았

다고 1월23일 밝혔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펼친 이번 기부행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동참한 가운데 여름옷 650여 장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이 행사는 국제로타리 3590지구와 청소년 국제봉사단체인 인터랙트, 로타렉트클럽이 연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된 옷은 2월 중에 필리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진주동명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한 차례 전교학생회 주도로 580여 장의 상·하의를 모아 초록우산에 기부한 적이 있다.

명신고 체험동아리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진주 명신고등학교 경영·창업활동 체험동아리 M.S.C.O. 학생들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교 매점 운영에 모금한 금액 전액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2월2일 밝혔다. 동아리 회원들은 "학대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 보리암, 동명고에 장학금 전달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스님은 2월8일 진주 동명고등학교(교장 김복률) 제63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재학생 11명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3월 2일 입학식에서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능원스님이 보리암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달하는 장학금 외에도 동명고 배구부 후원금 등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스님의 모교사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능원스님은 모교 동명고 후원 외에도, 남해지역 학생들과 경찰관 자녀 장학금전달, 군포교 등 미래불교를 위한 지역사회 후원 등을 이어오고 있다.



필통 진주 청소년 의식조사

청소년들의 생활, 그리고 교육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필통 진주 청소년 의식조사

조사기간 : 2016년 11월 21일~12월 3일까지
참여인원 : 남 720명 여 370명 총 1090명
참여대상 :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참여학교 : 진주고, 동명고, 대이고, 명신고, 중앙고, 진주여고, 경해여고, 삼현여고, 진주제일여고, 경진고, 경상사대부고, 진양고
조사항목 : 생활, 교육, 정치 3개분야 총 15개 문항

[교육분야]

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정도일까? 전체학생을 보면 4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살펴 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불만이다'라는 극단적인 의견은 7%수준으로 낮았지만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나 학교생활속 어려가지 고민이 적지 않음을 알수 있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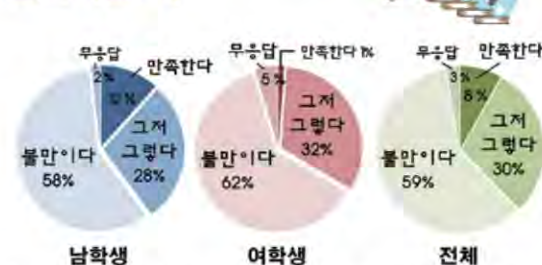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고민한적이 있다?



자퇴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43%가 자퇴를 고민한적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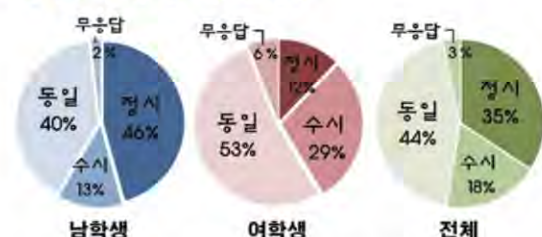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퇴율이 1.16% 17,000명에 이르는 현실과 학교밖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현실을 반영한 듯한 설문 결과다. 딱 맞춘 듯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퇴 고민비율도 거의 비슷해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거부감은 남,여학생 구분 없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에 만족하는가?



학생들의 자퇴에 대한 고민에서 엿볼 수 있듯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생각 또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59%의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만족한다'라는 답변은 전체에서 8%에 불과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입시 스트레스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입시제도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의 학생선발 어느쪽을 더 강화해야 하는가?



대학입시에서 입시전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가 44%로 제일 많았고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가 35%, 수시비율을 늘려야 한다가 18%를 차지했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은 조금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정시를 더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12%에 불과해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수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였다.

[생활분야]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다 54%에 불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낮다고 알려져 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학생은 전체의 54%. 남-여학생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학생은 7%에 불과해 위안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시절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라는 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게 고민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남학생 26% 친구 없다.



학창시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친구다. 친구의 존재야 말로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한 물음. 남, 여학생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은 95%가 고민을 공유할 친구가 있다고 답했지만 남학생은 그런 친구가 없다는 학생이 26%에 달했다.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은 많지만 속깊은 얘길 터 놓을 친구를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압도적으로 '가족'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압도적으로 가족이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43%, 확연히 가족을 손꼽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남학생은 가족-돈-친구-배우자-직업 순이었고 여학생은 가족-건강-돈-친구-배우자-직업 순이었다. 직업이 남,여학생 모두에게 제일 적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의외다.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여, 결혼 안해도 돼 40%



학생들의 결혼관은 어떻게? 물론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6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전체적으로 29%,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40%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안한다'라고 말한 학생도 11%에 달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경제 상황, 여성의 사회적 차별, 가정내 성차별과 육아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결혼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집은 화목한가? 화목한 우리집 72%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어떻게? 자신의 집이 화목하다고 말한 학생은 72%, 이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연일 뉴스로 보도되는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상황, 그리고 일상이 된 특별이 가정, 사회적으로는 이혼율의 증가까지 우리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위협하는 환경이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설문결과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저그렇다', '화목하지 않다' 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않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내가 받는 월평균 용돈은? 5~6만원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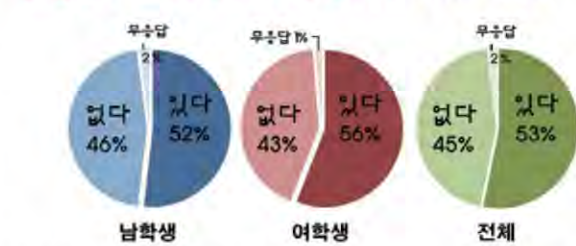
학생들은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간식도 사먹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PC방도 가야하고 가끔은 쇼핑도 해야한다. 이성친구가 있을 경우엔 그 씀씀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과는 27%가 월 5~6만원, 19%가 7~8만원, 16%가 3~4만원의 월 평균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놀라운 것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13%나 있었고 그와 반대로 1~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14%가 존재해 용돈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중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이유? 학업-성적 압도적!



학생들은 역시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었다. 남학생은 54%, 여학생은 무려 63%가 공부와 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다며 타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은 곧 학업과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가?사귀었다 53%



꽃다운 청춘인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이성교제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까? 물론 '연애는 대학가서' 라는 원칙을 절대고수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여공학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통의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기엔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닌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포럼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남,여 학생 모두 절반이 넘었다. 애상을 뛰어 넘은 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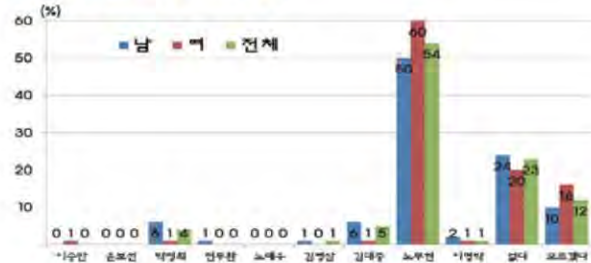
긴급 설문조사

만일 내가 선거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누구를 뽑을까?

2017년 필통 긴급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7년 3월 6일~3월 10일까지
참여인원 : 남 650명 여 290명 총 940명
참여대상 : 진주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참여학교 : 진주고, 동명고, 대아고, 명신고, 중앙고, 진주여고, 경해여고, 삼현여고, 진주제일여고, 경상사대부고, 진양고
조사항목 : 정치·사회 분야 총 7개 문항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은? 압도적 노무현대통령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누구일까?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1위는 전체 54%의 지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여학생은 60%의 지지로 50%의 남학생보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2위는 5%의 김대중대통령, 3위는 4%의 지지를 받은 박정희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학생의 경우는 노무현대통령을 제외하면 김대중, 박정희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답이 1%에 불과했다.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지만 조금은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바로 박정희대통령의 추락이다. 과거 2013년 필통 설문조사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37%, 박정희대통령이 12%였다.

다음 대통령으로 투표하고 싶은 분은? 문재인 29%, 홍준표 1%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누구 뽑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을까? 1위는 29%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후보, 2위는 9%의 이재명후보, 3위는 7%의 안희정후보, 4위는 6%의 안철수후보였다. 청소년들의 생각도 최근 진행되는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확연한 차이는 청소년들은 보수후보로 지칭되는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모두 1~2% 수준으로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졌음에도 다음 대통령에 대한 물음에 '없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24%, 20%나 됐다. 청소년들의 여전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엿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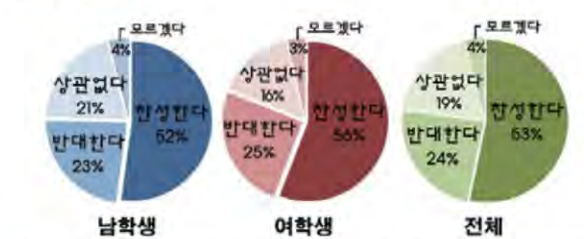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 정의와 경제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답변은 정의와 경제였다. 최근의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이어지는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 본 학생들의 마음이 이뤄지는 대목이다. 특이한 결과는 여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정의'를 꼽았고 남학생들은 '정의'보다 '경제'에 더 많은 의견을 보였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생각은? 찬성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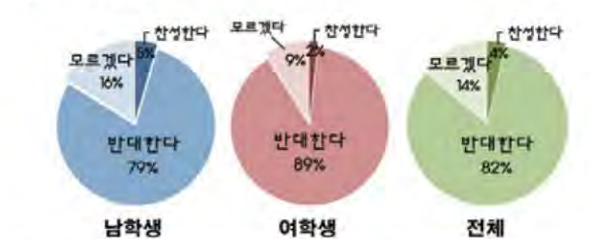
대선이 진행되면서 최근 선거법 개정과 함께 선거권 연령인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만 18세로 선거권연령이 낮춰지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중 일부가 그 대상이 된다. 결과는 찬성이 53%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슷한 답을 내 놓았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조금은 예상밖이었다. 찬성 답변이 훨씬 높긴 했지만 반대의견도 24%로 적지 않았다. 고등학생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답변일 듯 하다.

선거권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면 몇 세? 만 18세 41%



선거권 연령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만 18세가 41%로 가장 높았고 현행 만 19세로 유지해야가 30%, 만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14%였다. 사회적으로 현행 선거권 연령에 대한 문제제기만큼이나 학생들도 분명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설문결과 역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30%가 넘어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의식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생각은? 압도적인 반대 82%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높은 반대여론과 교육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보조교재 채택등으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 압도적이라 표현이 부족할만한 결과다. 82%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견을 보였다. 찬성의견은 4%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뚜렷함에도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국정화정책을 밀어 부칠 것인지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은? 보조교재도 안돼 71%



국정 역사교과서가 모든 학교에서 외면 받자 정부는 강제로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기 위해 보조교재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조교재 채택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의견은 단호해 보인다. 보조교재로서 국정교과서도 71%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보조교재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은 12%였다.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83개 학교, 경남에서 5개학교였다. 경남 5개 학교중 3개 학교는 이런 여론에 밀려 보조교재 채택도 취소했다고 한다.

[필통 생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리가 역사를 가를칠 수 없는 이유?

왜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4.19혁명이라는 역사가 있지만 한쪽에선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의 업적을 추앙한다. 5.16을 군사쿠테타로 배우지만 그것을 오늘날 대통령마저 구국의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함부로 독재자를 욕해가던 어느 한쪽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상한 현실이 양립하고 있다. 제 나라 백성을 학살하고 내란수괴라는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씨지만 여전히 국가원로로 존경받고 고향엔 생가가 관광지가 되고 기념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교과서속과는 다른 살아있는 역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일제이후 해방을 거쳐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거치면서 친일청산의 문제를 시작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엄연한 현실이 존재한다. 국사교과서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 비난하며 교육했다간 빨갱이 선생으로 낙인 찍히기 참고 당장 역사교과서조차도 동일한 현대사의 기록을 상반되게 서술하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다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다고? 5.16과 5.18을 헛갈려 한다고? 삼일절을 삼짇날이라 말한다고? 야스쿠니신사가 싸이의 댄스맨으로 안다고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역사 또한 진실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논리로 사유화한 우리사회의 거대한 힘과 권력이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사를 잃어버린 아픈 현실이 숨어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외면하는 민족에겐 그 미래가 없음은 불변의 진리다. 역사는 반복



되는 것이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역사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가진 국가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과 성찰이 이루어지겠는가?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 침략전쟁의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모시고 최고 권력자들은 그들을 참배한다. 그런 일본에서 어떻게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었는가? 어떻게 진실과 정의가 이긴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들에게 독도가 언제나 다케시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떠한가? 똑같은 전범국가로 범국가였지만 그들의 수 치스럼고 잔혹한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 역사를 독일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반성하며 아이들에게 철저하리만큼 자신들의 혐오스런 과거사를 교육한다. 그러한 제대로 된 역사의 정리가 없었으면 오늘날 세계의 리더로서 독일도, 통일된 독일도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일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독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고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친일잔재 청산등 제대로 된 우리의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지 되지 않는다면, 역사마저 사적인 소유물로 치부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될 것이다.

조지버나드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필통편집국]

[19금을 찾아서] 청소년 담배 판매 실태는?

담배는 19금? 담배사러 갑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담배가 실제 현실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은 담배를 피는 주위의 청소년들이 그다지 별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 하였다. 과연 다양한 담배 판매점들이 구매 청소년들에 대한 대처와 실제 상황들이 어떠한지 학생기자 가 잡입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보았다.

15곳 중 5곳, 33% 손쉽게 담배구입

흡연 학생의 잠깐 인터뷰

A고의 S군에게 물었습니다



Q: 흡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 했고, 그 친구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었다고 해요

Q: 얼마나 자주 피나요?
A: 하루에 10개비 정도 펴요

Q: 누구랑 어디서 피나요?
A: 보통 혼자선 잘 안 피고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집 옥 상이나 빌라 주차장 같은 구석진 곳에서 펴요

Q: 부모님이 흡연하는 걸 아시나요?
A: 모르세요

Q: 담뱃값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나요? 용돈이 부 족하진 않나요?
A: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용돈이 부족해요.

Q: 금연시도는 해보셨나요?
A: 지금 하는 중인데 사탕을 먹거나 금연파이프를 써요.

Q: 담배는 어떻게 구해요?
A: 담배는 주로 신분증 검사를 잘 안 하기로 소문난 동네 마트에서 사요

전자담배는 뭐지?



전자담배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호 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만든 담배이다.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함유되 어 있지 않아 담배보다 독성이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 만 전자담배 또한 해롭다.

전자담배에서도 눈과 목을 자극해 호흡기 질환, 구토, 두통 증 세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가 적은 양이지만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전자담배 구매와 사용이 늘고 있다. 청 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 는 청소년의 응답이 남학생 14.5% 여학생 3.3%로 심각한 수준 이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서 전자담배 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전자담배 에 노출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 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자담배도 담배 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 료를 내야 한다

필통 기자는 흡연 학생들이 말하는 동네 마트를 포함해서 진주시 곳곳의 마트, 편의점에서 담배구입을 시도했다. 학교 근처의 모든 편의점은 담배를 구입하 려 할 때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대동의 어떤 판매점의 경우는 담배를 가판대에 서 꺼내고 난 후 계산 직전에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판매원의 나이도 영향 이 있었다. 3~40대 판매원인 경우는 대부분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나이가 어린 20대 초중반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은 신분증 확인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편의점이 아닌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나 슈퍼는 대부분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3곳 중 2곳이 신분증 요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의 구별이 어려우리라는 판단에 대학교 앞을 찾았다. 대학교 근처의 편의점은 예상대로 신분증 요구 없이 4곳 중 2곳이 담배를 판매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 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 시 판매점은 100만 원의 벌금과 2~3개 월간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5곳에서 무려 5곳이 신분증 요구 없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 했다. 흡연하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학생인 것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판매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한다. 취재를 통해 생각보다 훨씬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통기자 방문 담배 판매처 기록]

순서	판매처	판매자 정보	판매 여부	구체적 상황
1	하대동 'ㅁ' 편의점	30대/남	X	담배를 주려다신분증 요구
2	하대동 'ㅊ' 편의점	40대/남	X	담배를 주려다 신분증 요구
3	중안동 'ㅅ' 편의점	40대/여	X	바로 신분증 요구
4	중안동 'ㅎ' 슈퍼	70대/여	X	바로 신분증 요구
5	중안동 'ㄹ' 슈퍼	70대/여	O	바로 줌
6	대안동 'ㅅ' 편의점	20대/남	X	담배를 주려다 신분증 요구
7	중안동 'ㅇ' 편의점	20대/남	O	바로 줌
8	중안동 'ㅁ' 편의점	20대/남	X	바로 신분증 요구
9	평안동 'ㅊ' 편의점	30대/남	X	바로 신분증 요구
10	칠암동 'ㄷ' 마트	50대/여	O	바로 줌
11	칠암동 'ㅊ' 편의점	20대/남	X	바로 신분증 요구
12	가좌동 'ㅁ' 편의점	20대/남	O	바로 줌
13	가좌동 'ㅊ' 편의점	20대/여	X	바로 신분증 요구
14	가좌동 'ㅊ' 편의점	20대/여	O	바로 줌
15	장대동 'ㅅ' 편의점	40대/여	X	바로 신분증 요구

<취재 후기>

처음 담배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다. 막상 가게에 들어가니 죄 를 짓는 기분이라 담배를 사지 못하고 음료수나 초콜릿만 사고 나왔다. 하지만 한번 담배구입에 성공하니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다.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지갑을 봐두고 왔는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우 거도 보았다. 가게 대부분이 신분증을 요구해 담배를 많이 못 살 줄 알았는데 5 갑이나 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흡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꺼림칙한 기 분을 느꼈다. '담배를 경찰서에서 팔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년의 담배접근 은 쉬웠다. 청소년의 담배접근이 이렇게 쉽다면 흡연예방교육의 의미가 희미해 질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의 담배구입이 '쉬움' 이 아니라 구매할 수 없어 '아쉬 움' 이 됐으면 한다.

분명 청소년흡연은 찬성할 수 없다 But '피우지마' 보다 '왜 피우는지'로 다가가야...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이번 취재처럼 정기적인 단속만 이루어져도 일반 매장에서 청소년에게 담배가 판매되어 지는 것은 쉽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00만원 씩이나 벌금 물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담배를 팔려고 들진 않겠네니 말이다.

청소년 흡연을 세계1위라는 타이들이 비단 법과 제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미성숙기 청소년에게 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인식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속된 말로 좀 세 보이고 걸 멋으로 순간 입에 문 담배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약과도 같음을 알아 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둔 채, 높은 흡연율의 청소년들 육만 해낸다면 무엇이 바뀔까?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에게는 빨리 끊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가 현실적으로 완전 금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어른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피우 지마' 라며 적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왜 피우는지' 라는 생각으로 청 소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기자가 구매한 담배]



고3, 흡연을 남학생 19.1% 여학생 4.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평균 만 12.7세에 흡연을 시작하고, 고 학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율은 최근 한달 간 하루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이 9.6%로 여학생(2.7%)보다 3배 이 상 높았다. 하지만 흡연율은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담뱃값 인 상으로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남학생 흡연율은 2015년 10.7%, 지난해 8.5%로 연이어 하 락했다. 여학생 흡연율은 2010년 7.8%에서 2011년 6.2%, 2012년 6.1%, 2013년 4.5%, 2014년 3.9%, 2015년 3.0%, 지 난해 2.8%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서 울지역 청소년 흡연율은 2011년 11.2%, 2012년 10.4%, 2013년 8.5%, 2014년 8.7% , 2015년 7.0%, 2016년 5.8%로 최근 6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다.



고등학생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2016년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남학생	11.0	14.1	19.1	14.7
여학생	2.9	4.3	4.3	3.8

[이슈&이슈]

왜, 선거는 19금인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이유?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또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선거권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선거권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엔 만21세였다. 그후 1950년에 20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후 무려 54년이 지난 2005년 겨우 현재의 만 19세가 되었다. 만19세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당시 여당과 야당이 만20세와 만18세를 놓고 싸우다 타협해서 만 19세가 된 것이다. 선거연령 만18

세 하향논의는 선거때면 늘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9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가입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합헌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만19세 미만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부모나 교사등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의 사람들을 정치적 판단이 미약하다, 보호자에 의존한다라는 논리는 공색해 보인다.

주민증, 결혼, 군입대, 공무원시험, 세금납부 OK! 선거권은 NO!!

그런데 왜 만 19세를 고집하는 것일까?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법을 만드는 여당과 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다 고등학생은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한몫하고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런 선거법의 만19세 기준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기준도 얼마전까지 20세로 되어 있다가 지난해 2013년 7월부터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다. 법마다 성인의 연령기준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러우게 사실이다. 병역법에서는 만18세 이상이 징집대상이고 공무원법에도 임용기준을 만18세로 하고 있다. 그밖에도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만17세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민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으며 결혼도 할수 있고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 또 세금도 내는 국민인데 선거권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하고 있다. OECD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유일하게 만 19세다. 일본은 지금 만 18세로 개중중이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선거권 연령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었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등에서도 18세를 만16세로 낮추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특별히 지방선거는 만16세 이상으로 정했고 독일의 일부 주에서도 지방선거연령은 만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똑같이 주어져 독일에서는 19세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고교 3년생이 시장선거에서 현역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기준 232개국 가운데 92.7% 정도(215개국)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고 주체 교육감선거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선거권이 만18세로 낮아진다고 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3중 일부다. 선거시기에 따라 생일을 지났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8세에 입학한 경우에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7세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예 제외가 된다. 실제 선거일에 따라 해당되는 고3학생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만' 연령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인데 굳이 정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학생들의 의견들도 있지만 투표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덜 가지고 교육정책이나 제도에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선거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더구나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로 교육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필통 편집국]



[특별기고]

참정권은 우리의 기본권이다

최근 청소년 참정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진보 성향의 야당이 '18세 선거권'의 필요성을 부르짖는가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퍼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진주에도 새로운 청소년운동 단체가 생겼고, 그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에도 댓글로 여러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열띤 '참정권 논쟁'이 벌어졌다. 그 댓글을 읽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많은 청소년의 입장이 꽤 미적지근하고 회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참정권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든다. 하지만 인간의 성숙은 개인의 경험과 성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기준인 '만 19세'를 전후로 인간의 미성숙과 성숙을 결정짓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한발 양보하여 청소년 집단이 비청소년 집단보다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낮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더라도 청소년 집단의 '상대적 미성숙'은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노화를 근거로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직 훨씬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적장애인에게도 거소투표(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같은 여러 보완책이 하여금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제도의 바탕에는 참정권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참정의 권리를 성숙과 미성숙의 잣대를 들어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는 특정 연령대의 법적 남성만이 가진다)와 부가가치세를 통한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므로, 의무에 앞서는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다. 행복추구권 중 일부인 신체의 자유, 정신

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듯이, 참정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은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본권은 의무에 앞서며, 나이를 가리지도 않는다.

OECD 국가의 선거연령이 대부분 18세라는 점과 18세가 지나는 여러 의무와 권리(병역의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결혼 가능)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근거로 썩 옳바르지 않다. 이런 근거는 참정권이 17세와 16세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본질적인 근거'의 논점을 흐리고, 참정권 논의의 대상을 '18세'에만 한정하는 결과를 만든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와 선거를 학습한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논의에는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는 본질적 근거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청소년 참정권 반대 의견의 대부분은 이 근거만으로도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슬프게도 정당 정



〈3월4일 촛불집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박태영학생(왼쪽)〉

치인과 국회의원조차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정당이 18세 선거권 필요의 이유로 '만 18세 선거권이 세계적 추세'를 택하고 있다. 참정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가득 차있고,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계산과 '교실=무(無)정치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기본권인 '청소년 참정권'이 희생되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다. 청소년이 스스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여길 때 더 많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며,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된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을 위한 시작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우리의 행복추구를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참정권 논쟁이 '잠시 향한 이슈'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이여! 우리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함께 외치자!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에 달도록 더 크게 소리치자!

[글쓴이 박태영]
글쓴이는 〈청소년 바보회〉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글을 쓰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뜻을 함께해 주실 청소년은 페이스북 〈청소년바보회〉페이지 또는 카카오톡(박태영 ID : hexafame)으로 연락 주세요!

[학교VS학교] 남, 여학교 학교안을 들여다보다

진주고등학교 VS 진주여자고등학교



바닥은 대리석이다. 문은 슬라이드 형이 아닌 여닫이문이며, 각 분단에 두 줄씩 세 분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분단의 수와 배치 방법은 학급마다 다를 수 있다), TV는 교실 천장에 매달린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며, 교실 정면 상단에 태극기가 배치되어 있

다. 더러워지고 움푹 파인 곳이 많았던 칠판 판면을 새 학기를 맞아 교체하여 칠판의 상태도 매우 좋다! 교실 뒷면 벽에는 진고 학생들의 잘 생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게시판, 땀에 젖은 체육복을 말려줄 옷걸이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쓰레기통이 존재한다.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진주여고의 교실내부다. 대부분의 책걸상, 사물함 등은 오래되어서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원지 아기자기하고 러블리 할 것 같은 상상속의 여학교 교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학생들은 빼적거리고 연필로 글을 쓸 때마다 같이 흔들리

는 책상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한 제대로 닫히지 않는 사물함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 사물함과 책걸상에는 아주 오래전에 써 놓은 듯한 '동방신기 최고' 등과 같은 낙서들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진주중학교의 잔디 운동장과는 다르게, 진주고는 운동장 지면은 맨땅이다. 진주중학교와 이어지는 담장 바로 앞에는 학교 숲이 존재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학생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본관 건물과 이어지는 경사면에는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축구 경기 관람이나 화재, 지진 대피 훈련에 활용된다. 기숙사와 과학관 옆에 존재하는 농구 골대에는 항상 학생들이 붐빈다.

운동장으로 나가보자

진주여고 운동장의 모습이다. 여고라서 그런지 운동장은 체육 시간 잠깐이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얘기하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정도가 여고 운동장의 용도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인들의 차량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이 된다. 남고와 달리 골대에 네트도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점심시간이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운동장을 빙빙 돌아 걷는 풍경은 여고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름은 비봉마루이고, 2013년 본관 건물 신축에 뒤이어 함께 신축된 강당이다. 강당 1층과 2층 일부에는 축구부 특기생들이 이용하는 숙소와 웨이트트레이닝실이 있고, 2층 전체에 걸쳐 급식소가 존재한다. 3층에 올라서 서야 강당이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내 중요행사가 존재할 때에도 주로 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강당 뒤편에도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주로 교사들의 주차장 혹은 식후 바람을 쐬는 장소로 이용된다. 체육관에는 농구 시합을 위한 경기용 농구 골대가 앞뒤로 설치되어있고, 측면에는 연습용

농구골대가 두 개 존재한다. 본관 방향의 벽면에는 체육교사의 사무실, 체육 수업을 위한 창고, 샤워실 등이 존재하고, 남쪽 뒷문을 나가면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화장실이 있다. 특징으로는 체육대회나 행사, 축제 등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서쪽과 남쪽 상단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기대면 잘 기울어서 기대면 안 된다.

강당(체육관)은 어때?



진주여고 체육관의 모습이다. 여느 학교처럼 평범한 모습이 아닌 빨간벽돌로 만들어져있고 큰 대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체육관 역시 운동장과 다르지 않게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아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살기 가득한 살인피구를 할 때 외에는 선생님이 배구를 하거나 학생 전체가 모일 때 사용한다. 특히나 연말 12월이 되면 일신축제의 본

공연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많은 남고생들을 비롯한 학생들로 인산인해가 되는 '핫플레이스'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곳은 급식소로,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1학년동, 2학년동에서부터 뛰어서 급식소로 달려가고 급식소 바깥까지 나와 있는 긴 줄을 볼 수 있다. 학생 수에 비해 작은 급식소 공간 탓에 학생들은 매번 밥을 받고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항상 서성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취재/ 오유진(진주여고2), 박승민(진주고2)기자]

기숙사 우정학사

진주고 기숙사는 부영건설에서 기증하여 창업자의 아호를 딴 우정학사입니다. 진주고 학생과 학부모는 독서실의 이름인 수문재를 기숙사 고유명사로 씁니다. 통학거리 무시 오로지 성적에만 근거하여 1학년 4인 1실*8=32명, 2학년 3인 1실*8=24명, 3학년 24명을 선발합니다. 국·영·수 성적만을 보며 중간, 기말 그리고 두 번의 모의고사를 합산합니다.



남명학과 마음공부 수업

항상 똑같은 학교에서의 일과. 학생들은 이런 지겨운 반복에 심신이 지쳐간다. 그런데 진주고등학교에 이런 학생들의 심신을 치유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고에만 있는 교양수업! 국어, 수학, 영어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인성과 인품을 키워주고 심신을 편안하게 치유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바로 '남명학 수업'과 '마음공부 수업'이다. 이 수업들은 1학년에 개만 해당되는 수업이며, 1학기 와 2학기를 구분하여 1주일에 1시간씩 정규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역사와 전통의 축구부

진주고엔 K리그 경남 FC의 U-18팀인 축구부가 유명하다. 진주고등학교 축구부는 1945년에 창단되었는데 긴 역사동안 수많은 대회를 휩쓴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뛰어난 국가대표 선수들을 계속 배출해 내고 있는 축구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조광래 씨가 진주고 출신으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교정

진주여고에는 다른 특별한 점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 '아름다운 교정'이다. 그 때문에 2009년에는 영화 여고괴담5의 촬영지로 선정되어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니, 그 모습이 대중 집객 갈 만도 하다.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 뺀치는 진주여고의 교정. 진주여고 학생들은 학교 교정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특별한 음악실

합창부 칸타빌레가 유명한 진주여고답게 가장 특별한 특별실 역시 음악실이다. 학생들의 음악수업과 합창부의 특강을 들을 때 사용된다. 소극장 형태로 되어있어서 무대도 있고, 의자역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의자이다. 내부에 창고도 있고, 칠판도 여러 개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초의 학교도서관

놀랍게도, 진주여고의 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이라고 한다. 진주여고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인데, 학교만큼이나 도서관에 대한 진주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다. 또한 도서관 내에는 소설 '토지'로 유명한, 진주여고 출신의 박경리 작가의 동문기념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만 있다?

[필통에게 물어봐] 궁금증 FACTCHECK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된다?

우리는 가끔씩 궁금증 앞에 선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 팩트냐? 아니냐? 그것의 진위(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알고 싶어 하고 진짜를 찾기를 원한다. 우리 생활 속 그런 궁금증들은 필통이 하나 둘씩 물어 본다.



Q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나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인 리노바이러스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독감과 감기가 다르듯이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것과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한다.

Q 우유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우유만 마셨는데 키는 안 크고 살이 찐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농축육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는 식사의 질, 신체성장과 골밀도 축적은 향상시켜주지만 비만은 유발시키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우유를 마시는 것은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걱정은 하지 말고 하루에 적당량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

Q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균은 “뮤탄스균”이다. 자일리톨에는 “뮤탄스균”을 줄이는 성분이 있다. 하지만 껌만 몇 개 씹는다고 균을 다 제거 하지는 못한다. 식약처에서는 1일 성인기준 12~28개의 자일리톨 껌을 씹어야 충치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껌을 씹는 것 보다는 양치질을 잘해야 한다.

FACTCHECK **NO!**



FACTCHECK **NO!**



FACTCHECK **NO!**



[필통 꿀팁정보]

라면을 더 맛있게 끓이는 핵꿀팁 BEST 8

밥 먹기 귀찮을 때,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밤에 출출할 때... 가장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라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라면 소비량은 전세계 1위로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연간 74개 정도의 라면을 먹는다고 해요. 주식이 밥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국민들이 사랑을 받으며 먹는 라면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고 라면을 더 맛있게 끓이는 꿀팁들도 많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베스트만 골라 알려드릴게요. 꿀팁들이 전하는 맛있는 라면을 더 맛있게 끓이는 핵꿀팁 BEST 8 이에요^^



1 해물라면에는 쌈장

해물을 넣고 라면을 끓일 때는 참기름과 마늘을 섞은 쌈장을 넣으면 해물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더 맛있어요. 쌈장과 약간의 간장, 고춧가루를 넣고 스프는 기호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해주세요.



2 학창시절 먹던 라면이 생각날 때는 설탕

학교 다닐 때 매점이나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라면 맛이 그리우세요? 학창시절 맛있게 먹던 라면맛의 비법은 바로 설탕이에요. 라면을 끓일 때 설탕을 넣어주면 더 맛있어지고, 설탕의 양은 라면 1개당 설탕 반술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3 감칠맛을 원한다면 식초

라면은 아무래도 조미료 맛이 강한 음식이죠. 그런 라면에 감칠맛을 원한다면 식초를 넣어보세요. 라면 1개당 식초 한술가락 정도 넣어주면 식초가 라면의 독성을 제거하고 감칠맛을 더해 깔끔한 라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4 집에 있는 국으로 라면육수

집에서 먹다 남은 국이 있으면 라면을 끓일 때 육수로 사용해보세요. 특히 콩나물국이나 말할 것도 없고, 소고기국, 삼계탕 육수 등에 라면을 끓이면 새로운 라면맛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국물에 간이 되어 있으니 스프는 아주 소량만 넣는 것이 중요해요.



5 라면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커피가루

가끔 라면을 먹을 때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커피가루를 넣으면 비릿한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커피가루 외에도 마늘, 레몬, 생강 등이 라면의 잡냄새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좋아요.



6 느끼한 라면이 싫다면 핫소스

라면은 대부분 유탕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끼할 수도 있어요. 라면의 느끼함이 싫다면 핫소스를 넣어보세요. 라면에 핫소스를 넣으면 느끼함은 잡아주고 핫소스 특유의 매콤, 달콤한 맛이 더해져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7 쫄깃한 라면을 원한다면 뜸들이기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을 위해 뜸을 들이는 것처럼 라면도 뜸들이기가 필요해요. 특히 라면 면발이 설익었을 때 라면 냄비 뚜껑을 닫고 불을 끈 채 1분간 뜸을 들이면 면발이 쫄깃해지면서 맛있는 라면이 완성돼요.



8 고소하고 순한 라면에는 우유

자극적이고 짭짤한 라면맛이 싫다면 라면을 끓일 때 물대신 우유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스프 대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고소하면서도 순하고 담백한 라면을 맛볼 수 있어요. 물을 하나도 넣지 않고 우유로만 끓일 때는 사리곰탕면류의 라면을 이용하는게 좋아요.



[진주 역사투어] 천년고찰 청곡사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

진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국보가 있다는데!

진주의 역사를 찾아가는 진주역사투어! 오늘의 주제는 '진주의 국보' 입니다.

진주에 국보가 있었다면 아시나요? 진주에 국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국보를 만나러 청곡사 문화박물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진주 청소년들이 한번쯤 찾아보기 참 좋은 곳이 바로 월아산 청곡사다. 말 그대로 천년고찰이다. 신라 헌강왕 5년(872)년에 도선 국사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으니 그동안의 사연도 참 많을 듯 하다. 푸른 학이 날아온 명당터라 해서 지어진 이름인 청곡사에서부터 조선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로맨스까지. 청곡사 주차장에서 운치 넘치는 일주문 길을 걸으며 이런 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재미진 일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진주의 유일한 국보를 다룬 아님 이곳 청곡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건물 3층 규모의 거대한 그림 한 장, 탕화를 보기 위해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 가서 만나게 되는 조금은 색다른 부처의 모습, 웬지 모를 엄숙한 기운도 일상을 떠난 새로운 경험이 될 듯하다.

반복되는 일상, 조금은 답답한 시간들의 연속일수 있는 학창시절.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끔 일상을 깨어 보는 것도 생활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PC방 노래방, 영화관도 좋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맘껏 자연을 즐기고 역사를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으로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까? 261번, 262번 시내버스를 타고 금산과 금호지를 지나 갈전마을에 내리면 1킬로도 되지 않는 곳에 천년고찰 청곡사가 있다.



〈청곡사 입주문을 들어서는 길〉



〈청곡사 전경〉

진주 유일의 국보 영산회괘불탱



진주 금산면 청곡사 문화박물관에 국보가 있다. 국보란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청곡사에 있는 국보는 제302호로 정식 명칭은 청곡사영산회괘불탱이다.

이 그림은 조선 경종 2년(1722)에 승려화가인 의겸과 80명의 승려가 참여해 석가가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교 그림이다. 압도적인 크기의 이 탕화의 규모는 세로 길이 10.4m, 폭은 6.4m 크기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불교 그림이다. 석가를 중심으로 양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그려져 있다. 문수보살은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며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동을 대변하는 불교그림에 항상 등장하는 대표 인물들이다.

이 국보 탕화는 박물관 지하 2층 지상 1층을 활용하여 보관하고 전시, 관람하게 하고 있다. 전시장이 마련되기 전에는 나무 궤 4개를 이어서 만든 통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7대괘불 중 유일한 국보로서 실제로 보면 크기도 엄청 크고 장엄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국보인 괘불 이외에도 보물 1232호로 지정된 대법천왕 및 제석천왕,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와의 혼인을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청동향완, 업경대, 청동여래좌상, 나반존자 등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만나 볼수 있다. 크지 않은 작은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시 먼 역사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진촬영 금지이지만 특별하게 허가를 얻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람 Tip!!

현재 국보(청곡사영산회괘불탱)를 보기 위해서는 대략 10명 내외의 인원으로서 미리 청곡사로 전화해 예약을 해야 한다. 물론 관리상의 문제다. 또한 플래시를 사용해 사진을 찍으면 문화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제한되어 있다. 청곡사의 국보를 직접 보고 싶다면 버스 261번 또는 262번을 타고 신기마을에서 내려, 길을 따라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파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청곡사까지 도착할 수 있다.

청곡사, 이성계 그리고 갈전리 로맨스



고려 말 1380년경 남해에 노락질하러 출몰하는 왜구들을 소탕한 이성계 장군이 청곡사에 참배하러 왔다가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자신도 목을 축이려 했는데 그때 물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워서 이성계장군에게 건네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청곡사 아랫마을에 사는 진양 강씨 부인이니 훗날 조선 태조의 둘째왕비인 신덕왕후였다.

당시 청곡사 마을 이름이 '갈마정'으로 목마를갈(渴), 말마(馬), 우물정(井)이었으니 지명에 나타나듯 전설을 얘기해 준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갈전'으로 변했다. 신덕왕후는 그 후 고향마을의 청곡사를 대대적으로 불사하고 조선왕실의 비보사찰이자 원찰로 삼았으며 조선왕조 대대로 이어져 왔다.

태조 이성계와 왕비는 죽어서도 서로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태조 이방원이 왕위를 받으면서 운명은 그 둘을 갈라놓아 신덕왕후는 정릉(서울 성북구 소재)에 태조는 건원릉(경기 구리시 소재)에 모셔져 지금까지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

뭐? 진주에 국보가 또 있었다고! 축석루 국보로 다시 돌아 올까?



진주성 동쪽 남강 바위 절벽 위, 우뚝 솟은 축석루는 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축석루는 고려 고종 28년에 창건해 여덟 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다. 오래 전 축석루는 진주성을 지키는 본부로 사용되기도 하고, 향시를 치르는 고시장으로 사용되었고 선비에게는 풍류를 즐기는 장소였다.

보통의 사적과는 다르게 축석루는 출입이 개방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과 함께했다. 축석루는 1948년에 국보 제 27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불에 타 소실되며 그 모습을 잃게 되었고, 1956년 국보에서 해제되었다. 소실된 축석루는 1959년 국비로 재건을 시작했으며, 전국 최고의 문화재 장인 기술자들이 참여해 소실된지 10년만에 재탄생하였다. 축석루는 1960년 재건 당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원형이 소실되어 재건되었다는 이유로 예전의 '국보'가 아닌 '지방문화재 자료 8호'로 지정됐다. '문화재 자료'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모두가 '국보'라고 알고 있었던 축석루는 그저 '문화재 자료'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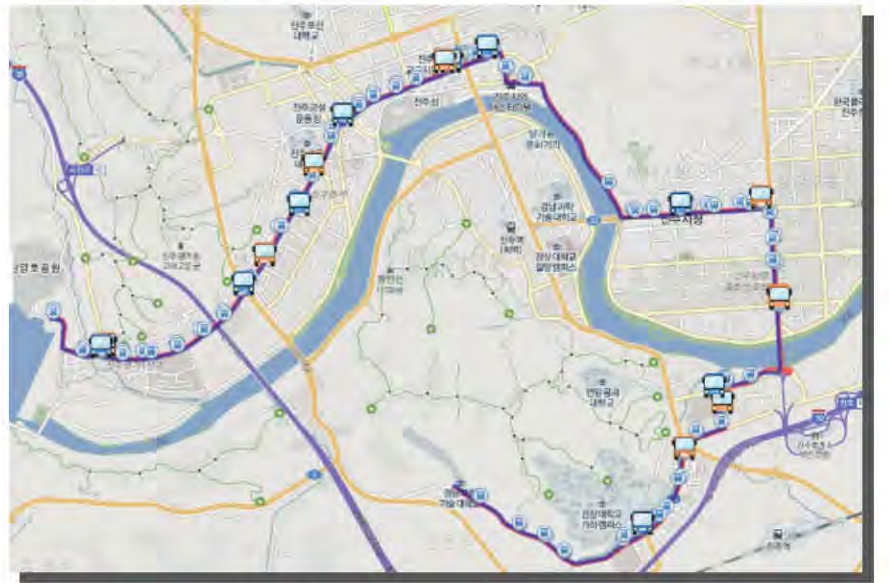
그런데 진주의 자랑인 축석루가 다시 국보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84년 화재와 1957년 폭우로 쓰러져 중건된 밀양 영남루는 축석루와 달리 보물을 유지하고 있고 2008년 방화로 소실된 승례문 역시 국보 1호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석루가 재건축이 아니라 보수, 복원되었다는 정부기록문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설계도 일부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의 축석루가 원형대로 복원되었다는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진주에 국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를 만들 수 있다. '진주역사투어'를 따라 역사여행길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타요?타요!] 진주시 시내버스 여행

시내버스 입금랭킹 1위, 황금노선 120번

이번 필통의 새 코너 '타요?타요!'는 한마디로 진주의 시내버스 여행이다. 3월호에서는 가좌동 공영차고지에서 진양호로 가는 버스인 120번을 직접 타고 버스 밖 우리 동네의 모습과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120번 버스는 가좌동, 호탄동에서 평거동이나 시내로 갈 때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경해여중,제일중,진주여중,진주기공,삼현여중,고,개양중,사대부설중,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 타는 버스이기도 하다.



SPEC 120번에 대해 알려주마!

- ◇편도소요시간 : 50분
- ◇첫차 : 05:50 막차 22:38
- ◇배차간격 : 6분에서 변경됨, 출퇴근 10분, 평시 15분(탄력배차)
- ◇편도운행거리 : 15.7Km
- ◇운행횟수 : 113회
- ◇2012년 8월1일 기준 26번에서 번호변경
- ◇입금랭킹 1위 황금노선

진주시에서 인기가 많은 130, 350, 530, 531번이 창원에서 배차로 1등을 하는 8번 보다도 운행횟수가 많은 상황. 참고로 인구는 창원인 진주의 3배 가량 된다. 2012년 개편 전에는 구.35번이 290회로 1위를 달렸지만 개편 후 350, 351, 360으로 분리되고 350번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연장되면서 120번에 1등 타이틀을 내 주었다.

- 진주에서 350번과 같이 유서 깊은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이다.
- 모든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노선이기도 하다.
- 2012년 진주시 노선개편 이전에는 노선번호가 26번이었다.
- 항상 손님이 많은 노선이지만, 그만큼 과속이나 기차놀이가 심한편이기도 하다.
- 수요가 좋아서 그런지, 진주시 시내버스 중 차급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대부분이 유로6 차량일 정도로 각 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준다.
- 경상남도 전체에서 가장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이다.
- 이러한 특징을 보면 이 노선을 진주시 대표노선으로 꼽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INFO 진주 시내버스 요건 몰랐지?

- ◇진주에 시내버스는 몇 대?
- 인가된 차량 239대 (총 버스수 262)
- 삼성교통 88(98)대, 시민버스 73(80)대, 부산-부일교통 78(84)대.
- ◇디지털버스 비율은?
- 90/262대, 34.35% (나머지는 모두 천연가스 버스)
- ◇자동변속기 차량은?
- 218/262대 83.21% (저상버스는 26/262)

- ◇시내버스 차종은?
- 현대 220/262대(83.97%), 자일대우 36/262대(13.74%), TGM 6/262대(2.29%)
- ◇시내버스들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 2016년식 72대/ 2015년식 24대/ 2014년식 22대/ 2013년식 25대/ 2012년식 23대/ 2011년 이전 96대 (2017년 2월26일 기준)
- ◇버스의 소요시간 측정기준 속도는?
- 도심구간 평균 20Km/h, 읍면구간 35Km/h

출발에서 도착까지

출발 - 공영차고지



120번 버스의 종점이자 130,136,140,160,170버스 그 외 다른 100번대 버스들의 종점이기도 하다. 차고지 주변은 시골분위였으며 근처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2 캠퍼스가 있었다. 여기서 120번 버스를 운행하시는 한 기사분께 말을 걸었다.

[버스기사 인터뷰]



120번 버스를 운행하시는 삼성교통 박모씨

- Q. 120번이 다니는 곳 중 가장 좋아하는 정류장이 어디죠?
- A. 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정류장이 제일 좋아^^ 예를 들면 여기서(공영차고지) 가좌그린빌 가기전

이 제일 좋아.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안타니깐~ㅋㅋ

- Q. 120번 버스가 다른 버스 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 A. 노선에 방방 도는 곳이 없어서 운행하기 편하지... 그리고 다른 버스보다 노선이 비교적 쉽고 간단해서 좋아~

- Q. 그런데 진주시내버스는 줄줄이 가차처럼 많은 곳 많고 어떤 곳은 아예 버스 보기가 힘든 곳도 많다고 불만이 많아요?
- A. 그래.. 기사들도 시간에 늘 쫓기니 힘들고, 회사끼리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 시민들 안전도 문제지... 완전히 새롭게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할 거야.

도착 - 진양호



버스 노선번호중 '2' 가 있는 버스들의 종점이다. 바로 앞에 진양호, 충훈탑이 있으며 길을 따라 10분정도 걸어가면 진양호 공원이 나온다. 여기는 버스기사 휴게실이나 사무실 같은 것이 없고 승객만 내려주고 돌아서 다시 나간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TOP 3

1.롯데시네마-시내



진주 시내에 위치한 영화관 롯데시네마의 이름을 딴 정류장이다. 정확한 위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옆과 맞은편에 각각 한 개씩 있다. 시내에 있는 정류장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중 하나다. 버스번호에 '2'가 들어가 있는 버스가 주로 통과한다.

2.공단광장-상대동



상대동에 위치한 정류장이다. 상평동에 공단이 있는 곳 근처라서 공단광장이라는 이름을 쓴다. 주변에 편의시설 등이 많고 통과하는 버스노선이 56개나 돼서 환승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3.경상대학교-가좌동



가좌동에 위치한 정류장이다.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가 있는 곳에 있어서 경상대학교 라는 이름을 쓴다. 바로 앞에 경상대학교가 있고 대학로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120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

- ◎박 모(19.여)씨
- "저는 주로 경상대학교에서 타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진주교대에서 내려요. 반대로 진주교대, 롯데시네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서 경상대학교에서 내리죠. 집이 가좌동이라서요, 정점은 다른 노선보다는 배차간격이 짧아 버스가 자주 와서 좋은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가좌동에서 신안 평거동을 가는 버스가 120번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21번이 빠르게 가지만 121은 배

차간격 30분이라 잘 안 오죠..."

- ◎최 모(23.남)씨
- "저는 학교가 경상대학교라서 학교를 갈 때 주로 120번을 이용해요. 집이 하대동인데 하대동에서 경상대로 바로 가는 버스가 별로 없어서 공단광장에서 환승을 해서 120번을 타고 가요 대부분 공단광장에서 타고 경상대학교에서 내리죠. 이번 버스 부분개편으로 배차 시간이 길어졌더니 조금은 불편해지겠네요"

부분 개편? 진짜 개편은 언제하나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느끼는 점이 참 많다. 한 정류장에 줄지어 선 버스들의 행렬, 서지도 않고 달려가는 버스, 카 레이서를 펼치는 버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조그만 외곽으로 가면 가뭇에 공니듯 다니는 버스.

그런데 정작 진주시의 시내버스는 인가된 차량만 239대라고 한다. 진주시 정도의 규모라면 200대 정도가 적정하다는 운영결과가 있다고 하니 버스가 부족한 것이 아님은 틀림없는 듯 하다.

그럼 이유가 뭘까? 도시는 인구도 변하고 도심도 변하고 경우에 따라선 신도시가 나타나기도 하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진주는 지난 50년동안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획기적인 운영체계의 도입과 같은 변화를 가져지 못했다.



노선은 그때 그때 땀집식 처방을 하고 도시의 변화와 확장에 따라 손쉽게 새로운 노선을 지도에 그릴뿐이었다. 이런 비효율은 무차별적인 증차를 초래했고 버스회사별 무한경쟁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노선이 덧칠될 때마다 어김없이 진주시의 도심속 돈 되는 도로는 시내버스들의 경주장이 되어 버렸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고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이동권으로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진주시도 더 이상 부분적인 땀집처방의 반복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고 생활 그 자체다. 진주도 하루빨리 편리한 시내버스, 돈벌이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좋은 도시 위한 진주'가 되었으면 한다.

제2 외국어 선택? 답은 정해져 있어!

인문계 10개교 중 5개 학교는 일본어가 유일 제2외국어

고등학생이 됐다 싶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고2가 된 송모 군. 인문계 고등학교2학년 생활은 1학년 때와 다른 점이 몇가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큰 차이점 두가지를 꼽자면 문이과 선택과 제2외국어 선택이다.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던 송모 군은 문과를 선택했고 이제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었다. 왜냐면 J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제2 외국어가 한 과목뿐이었기 때문이다.

J고를 포함해 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의 과목 수가 하나인 곳은 진주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5곳이나 된다. 게다가 그 모든 학교가 약속이나 한 듯 가르

치는 제2외국어는 모두 일본어로 똑같다. 그나마 제2 외국어가 2과목인 학교는 4곳, 3개인 학교는 1곳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제2 외국어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선택의 폭이 좁다.

더구나 반 배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 진주의 D고등학교에서는 문과는 일본어 이과는 중국어, 이렇게 반을 배정한다고 한다. 당연히 중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문과라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G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제2 외국어를 신청을 해서 인원이 꽉 차면 뽑기를 해서 결정하는 공여지책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글로벌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영미권만 중요시 되었던 과거와 달리 세

계 여러나라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발달한 IT기술은 모든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 당연히 배우는 학생들의 관심의 폭도 넓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제2외국어의 관심은 찾을 수 없고 학생들의 선택의 폭도 사라졌다.

그 예로 제2외국어 가운데 독일어, 프랑스어 선택 비율이 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력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 5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문화적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담당 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전전하거나 아예 다른 과목을 재교육 받아 가르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퇴출되다시피 하



고 전공 학과조차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제2 외국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교과로 전락했고, 수능에서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인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적어도 제2 외국어 과목 자체를 아예 폐지하지 않으려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제2 외국어가 정해져 버린다는 것은 참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하다못해 2~3년에 한번이라도 2과목 정도를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과목을 개

你
你好吗
Ni Hao Ma?
How are you?

설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으로 반이 편성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재/ 송문교(진주교2)기자]

다같이 그렇게 일찍 학교를 가야 하나요?

획일적인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볼때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학교다녀 오겠습니다'가 아닌 '집에 갔다오겠습니다'가 더 익숙하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하루 중일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나 등교를 한다. 학교에서는 피곤한 학생들에게 이른 아침(오전 8시까지)에 등교하길 원한다.

때문에 '10분만 더' '5분만 더'를 외치며 아침마다 엄마와 기상전쟁, 아침밥 전쟁을 펼친다. 비몽사몽간 집을 나서다 보면 아침밥을 챙겨먹지 못하고 학교매점이나 학교 근처 마트에 가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은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학교 등교시간에 대해 불만이 있나?"는 질

문을 던졌다. 그 결과 총 20명 중 15명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그중에서 몇 학생들은 "이른 등교시간 때문에 아침잠이 쏟아져 학교 수업중에도 잠을 잔다"라고 덧붙여 대답했다.

등교시간이 빨라진 것은 분명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교간 경쟁의 산물이다. 그래서 일지도 않은 0교시 수업을 했고 0교시 수업을 하기 위해선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다. 겨울에는 정말 캄캄한 어둠속에서 등교를 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장면을 연출 했었다. 0교시 수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업이 없어지는 대신 그 자리에 자율학습이 생겼다. 당연히 그 자율 학습을 위해 학교에는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야 한다.

참 비정상적인 일이다. 왜 우리 학생들은 새벽같이 모자란 잠에서 깨어야 하

고 아침밥도 못 챙겨 먹고 학교에 가야 하는지 누구도 얘기 하지 않았다. 학부모도 학교도 학생을 조차도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다지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까지도 어쩌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고등학교 3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1분 1초도 아껴 써야 하니 한 시간이라도 덜 자고 새벽같이 학교를 향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바치는 것 만큼 멋진일도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꼭 이렇게 일찍 학교에 가야 하



는 걸까? 당연한 듯한 등교시간.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권장하고 현재 초중고 89%가 9시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문제, 잠자는 0교시 수업의 문제를 어느정도 개선했다는 분석이 있다. 학생들의 지각이 줄었고, 아침 식사 횟수가 늘었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확연한 변화다. 그 결과, 세종과 충남,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9시부터 학교는 시작해도 된다. 더 부지런하고 더 공부에 열정적인 친구들은 그 만큼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집으로 오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 아닌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

[취재/ 송진서(명신교2) 기자]

너 가방 어디꺼니? 얼마짜리야?

청소년 무분별한 브랜드 선호사상은 과소비로 이어져...

어느덧 시간이 흘러 3월이 되었고,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방, 새 옷, 새 신발을 장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네이버에 '신학기'를 검색하면 자동완성 검색어에 '신학기 백팩', '신학기 가방' 등의 검색어가 제일 위에 뜬다. 그만큼 신학기 때는 가방 등의 학교관련물품에 대한 학생들의 소비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진주 남내 고등학생 20명에게 '신학기 때 가방을 새로 산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20명 중 1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학생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10만원이 넘는 가방을 구매했다는 학생도 11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신학기 가방'을 검색 했을때 나오는 대

부분의 상품은 10만원이 넘고, 진주 시내 웬만한 브랜드 매장에 가 봐도 오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방은 찾기 힘들다.

사실 만 원짜리 가방이나 몇 십만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가방이나 그 기능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값비싼 브랜드 가방을 찾고, 실제로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 한다. 남들과는 다른 옷, 유명연예인이 광고하는 가방,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신발 등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자 한다. 또,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학생들 때문에 유행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학생들

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면 나도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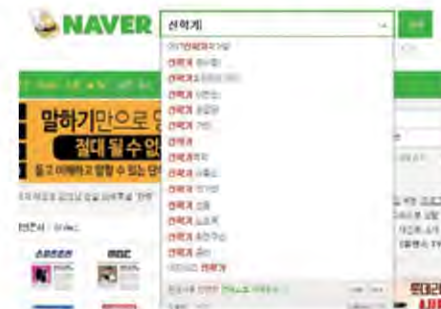
다른 이유로는 부모들의 지식 사랑도 한 몫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길 바란다. 부모들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중 하나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최고급 브랜드로 치장시키고 많은 용돈을 쥐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또, TV나 신문 등의 브랜드의 광고도 브랜드 선호사상을 부추긴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브랜드 광고를 보면 구매 욕구가 강해진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만 아니다. 브랜드는 일반제품에 비해 제품의 질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서비스나 수선, 교환, 환불 등이 쉽다는 등의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무분별한 브랜드 선호사상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보다 실용적이고 질 좋은 상품을 고르는 건 어떨까? 남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알맞고 실용성 뛰어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습관이 필요할 때다. 자신의 가치는 상품의 가격보다 내면에서 평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재/ 주예진(삼현여고2)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찾아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모든 것이 정치’ 정치외교학과를 주목하라

정치외교학은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명한 정치 과정과 정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초국가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비정부단체·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외교학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정치사상과 이론을 기초로 국내외 정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정치외교학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경상대학교를 찾았다. 현재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대학생들을 통해 여러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다.

Q1. 정치외교학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 어두선 : 정치외교학과는 특정된 이미지가 정치나 외교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외교부의 인재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정치사상이나 정치경제처럼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으로 그 영역이 넓다 하겠습니다.

교학과에 편입한 케이스죠. 개인적인으로 정치인이라는 추상적인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 어두선 : 저는 정치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생때 사회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부패, 정경유착등의 잘못된 현실이 궁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로 하고 복수전공으로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학과공부가 앞으로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박재홍 : 저는 정치인의 꿈으로 편입을 했어요. 사회에 불만은 많지만 실제로 현실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죠. 정치를 학문적,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준다고 생각합니다.

→ 어두선 : 정외과 특성상 외교부등으로 진로가 많이 열려 있어요. 실제 졸업후 외국에 근무하시는 선배들도 있고요. 저는 현실정치를 생각하고 들어 왔는데 정치, 경제등 구체적인 현실 정치를 배울 수 있어 좋습니다.

Q4. 학과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 어두선 : 외국인 전담교수가 있어 영어원강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실력과 국제적 시야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또한 글로벌 리더쉽 교육으로 해외로 나가서 국제기구나 엔지니어, 대사관에서 교육을 받는 해외 프로그램도 정치외교학과에 특화된 커리큘럼입니다. 그외에도 외교부등에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자주 만나 볼 수 있고 교수님들도 실제로 지금도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Q5. 지금사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홍 :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참담함을 느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Q6.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 박재홍 : 국가론같은 책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도 정치외교적 감각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어두선 : 사회과학분야의 책들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도움되는 책은 '북벌론' 같은 있는데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죠. 고등학교때는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Q7. 고등학생 시기의 중요한 과목?

→ 박재홍 : 언어 과목이요. 저희 학과는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해요.^^ 강의부터 리포트, 발표, 팀 과제, 논문 등의 많은 활동을 전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게다가 영어도 정치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어분야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Q8.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 어두선 :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외과는 특히나 진짜 꿈이 있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그것을 정말 구체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대학교 정외과 4학년 박재홍(좌), 3학년 어두선(우)〉



정치외교학과? 궁금해 궁금해!!



학과에선 뭘 배우나?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면 1학년 때는 전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치학 원론, 국제정치학개론과 타 단과대의 여러 교양 수업을 통해 정치학 공부의 기본적인 전공지식을 다지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 심화 지식을 쌓기 시작하며 3학년이 되면 세부 전공과목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학습합니다.

4학년 때는 〈정치학 연습〉 등을 수강하며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각자의 진로 계획에 따라 졸업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교과과정의 세부 사항은 각 학교별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외과에서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 [외교정책론]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 등을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 변동 양상을 심화하여 배움
- [한국외교론]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대외 정책 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타당한 국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움
- [현대정치이론] 최신의 정치이론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제하는 정치적 가정들에 대해 배움
- [정치학개론] 정치, 권력, 리더십, 정치과정 및 과정, 정치사회화 등의 기본개념 및 국제정치학에서의 개념과 이론을 배움
- [국제관계론] 국제정치상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현상과 국제정치학에서의 기본개념 및 이론에 대해 배움

정치외교학과 개설 대학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일반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국내외 정세 속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하여 현실의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외교학과는 대학에 따라 정치외교학부, 정치외교학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행정/언론학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개설대학 / 2014년도 기준]

전공	대학교명
정치외교학과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연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경성대학교/동아대학교/동원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인천대학교/인하대학교/배재대학교/충남대학교/경북대학교/계명대학교/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단국대학교/명지대학교/아주대학교/강원대학교/정주대학교/충북대학교/전북대학교/영남대학교/경남대학교/경상대학교/인제대학교/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건국대학교/서강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인하대학교/동국대학교/경남대학교
학부 유사 학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정치외교학전공/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외교학과

너에게 딱! 맞을 것 같아~

평소 사회 전반의 문제나 그 해결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정치외교학과로의 진학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특성상 국내외의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정치외교학과로의 진학 및 수학에 적합하겠죠?^^

또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위해 현재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려는 정치외교학도의 역할에 입각하여 평소 정치제도, 외교관계 등을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목! 정치외교학과에 가려면?

■독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정치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목을 다룹니다. 그래서 폭 넓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준급 영어 실력

물론 최고의 대학에 진학 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뛰어나겠지만, 강의의 1/3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재, 발표, 토론, 시험이 영어로 많이 이루어진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수준급의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모든 학문에 글쓰기와 말하기는 중요하겠지만, 정치외교학은 1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을 서술하고 말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수학

정치외교학에 왜 수학인가 의문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정치외교학에선 통계도 다루고, 수학만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되는 학문은 없기 때문에 수학도 열심히 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추가사항

요즘 중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UN에서도 영어 다음으로 불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럽에서는 외교상 불어가 공식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제기구나 외교 무대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불어를 배워두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 김보중, 조혁준(사대부고2)기자]

[핫플레이스] 가상현실 체험! 진주 VR랜드를 가다

실제 놀이기구를 타는 짜릿한 가상현실의 경험



‘미래는 가상현실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진주에서도 다가 올 VR시대를 재미있게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에 올라가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을 타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진주에선 너무 멀죠? 금액도 부담,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부담, 그동안 놀이동산은 진주 청소년들과는 아주 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이 놀이동산을 가지 않아도 똑같은 재미와 스릴을 줄 수 있다는데 믿겨 지시나요? VR랜드, 흔한 맥스라이더와 비슷해 보이는 VR, 말로만 듣던 가상현실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 가상현실 VR, 넌 누구니?

가상현실(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서 그래픽 등을 통해 현실이 아닌 환경을 마치 현실과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가상현실은(VR)의 특징은 이를 체험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리얼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로써 가상현실(VR)은 현실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사용자를 몰입하는 기능을 한다.

● VR랜드, 어디에 있나요?



진주 대안동, 시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 이용요금이 궁금해?



● 어떻게 이용하나요?



VR 체험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 골라서 체험을 할 수 있다. 360도 메가스윙,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 놀이기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그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프로그램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있다. 보통 한 프로그램에 3~5분 정도 소요된다. 움직이는 강도나 프로그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



Tip. VR랜드 사격장도 있다

가상현실 체험 말고도 VR랜드에는 사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인형을 맞춰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인형을 준다. 만약 인형 3개를 떨어뜨리면 큰 인형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 필통 기자 체험 후기

사실 처음엔 MAX라이더랑 별반 다를 거 없어보여서 실제 놀이기구와 비슷한 느낌이 들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높지 않았었다. 하지만 직접 360도 메가스윙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 체험을 할 때 VR기기로 보이는 화면도 기대 이상으로 생동감이 넘쳤다. 전체 기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로 화면을 보니 정말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이 들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고, 소리를 지를 뻔하기도 했다.

놀이기를 정말 타고 싶었는데 놀이공원이 너무 멀리 있다면 VR랜드에 가서 놀이기구 프로그램들로 가상체험을 하고 오면 될 것 같다. 사실 한 번 체험하는데 4000원이란 금액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단 한 번 더 하고 싶고 조금만 더 오래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가상체험의 묘한 매력은 당분간은 머릿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의 VR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재미난 경험이었다.

[사장님 궁금해요? 잠깐 인터뷰!]

Q. 몇 년 전 유행한 MAX라이더와 비슷한 것 같아요. MAX라이더와 뭐가 다른가요?

A. MAX라이더는 4D 안경을 쓰고 화면을 보는 것이예요. 나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하지만 VR은 4D 안경이 아닌 고글을 씌니다. 그러면 그 고글에서 화면이 나오죠. VR은 실제와 가장 흡사해요. 비교가 안되죠.^^

Q.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VR의 매력!

A. 아무래도 사실감이지요. VR은 실제 놀이동산에 많은 돈을 주고 가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작은 매장에서도 체험이 가능해요. 이 고글이 있으면 집에서든 체험이 가능하죠.

Q. VR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A. VR의 단점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화면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멀미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40대가 넘어가면 이런 일이 많아져요. 청소년들은 그냥 즐기죠.

Q. VR체험을 할 때 바로 정면에 창문이 있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A.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하지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면 블라인드를 내려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필통 청소년 독자들에게 해주고픈 말씀이 계신가요?

A. 새로운 기술로 놀이기구를 타는 다양한 경험은 해볼 만해요. 또 VR이 작년부터 시작되는 산업으로 정부와 기업에서도 육성 중이에요. 그렇다보니 요즘 드론을 이용하여 영상을 찍는 것처럼 VR 관련 직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VR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VR과 AR은 어떻게 다른가요?

VR과 AR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MR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MR은 무엇일까요?

우선 VR과 AR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VR은 'Virtual Reality(가상현실)'의 약자로, 특수한 기기를 이용하여 현실과 비슷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AR은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의 약자로, 실제 현실과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융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조합하는 기술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VR은 매트릭스, AR은 아이언맨

VR과 AR의 예시를 영화에서 찾아보자면 VR은 매트릭스, AR은 아이언맨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AI가 인간을 1999년의 가상현실 세계로 보냈던 것처럼, VR은 오컬러스 리프트, 기어 VR과 같은 특수한 기기를 통해 사용자를 현실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렇듯 VR은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차단하고 입체 영상을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반면, AR은 사용자와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AR은 현실이라는 무대에 가상의 물체를 입힙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인공지능 자비스가 날아오는 물체에 대한 속도나 위험도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부가 정보를 아이언맨에게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로 AR 기술입니다.

② 전용 기기의 필요성 여부

VR은 보통 HMD(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구현됩니다. VR 자체가 사용자에게 가상 세계를 체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차단하면서 실제와 같은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AR은 전용 특수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포켓몬GO'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③ 몰입감과 정보 전달력

VR은 '빠져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몰입도 높은 가상현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게임, 영화 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VR은 장시간 사용 시 멀미와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AR은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에 가상의 이미지 및 정보를 덧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물관과 같은 교육 및 전시공간, 쇼핑센터 등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은 무엇인가요?

MR은 짜장면과 짬뽕을 합친 짬짜면, 노트북과 태블릿을 합친 2 in 1 PC와 비슷합니다. MR은 VR과 AR을 합친 것인데요. 'Mixed reality(융합현실 혹은 혼합현실)'의 약자로, VR의 단점인 가상현실이 주는 이질감과 AR의 단점인 낮은 몰입도를 개선하고 각각의 장점을 강화시킨 기술입니다.

MR은 사용자를 AR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 현실 안에서 MR은 사용자에게 VR처럼 가상의 물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현실에서 '실제인 것처럼' 다룰 수 있게 만듭니다. 가상의 물체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AR에서는 현실세계에 덧입혀진 가상의 세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MR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E3 2015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MR기기인 홀로렌즈 시연 장면을 보면, 평범한 실제 테이블 위에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물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더 자세히 보이기까지 합니다.

[동아리 탐방] 대아고등학교 방송부 DABS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하듯 우리 꿈도 생생해 질 것

각 학교마다 대부분 방송부가 있다. 어쩌면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동아리가 방송부이기도 하다. 대아고 방송부 DABS는 매년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는 플래시몹 영상 때문에 전주시역 학생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대아방송부 DABS 그 속에 숨은 이야기들, 동아리에서 잘생김을 담당하고 있는 동아리 부장 최민수 학생을 만나 들을 수 있었다.



〈동아리 부장 최민수(대아고2)〉

Q. 동아리 뜻이 무엇인가요?

A. DABS는 방송부이고요, DAEA BS의 줄임말입니다. 딱히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Q. 동아리 원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말 그대로 방송부인 만큼 방송에 관련된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 위주로 뽑고 있어요. 저희 동아리 제한 인원이 한 학년 당 12명이라 인원이 초과가 되면 자신감 넘치고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을 면접을 통해 뽑죠. 중요한 건 열정이겠죠.

Q. 동아리활동 중 의미 있었던 일은?

A. 저희는 전교생이 아침 명상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방송부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방송준비를 하면서 힘든 일들을 부원들이 같이 풀어가고 극복해 간다는 것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학교에 선 후배,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Q. 그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힘든 건 아무래도 매일 아침마다 누구보다 일찍 학교를 와서 아침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같이 즐기거나 참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일찍 가서 촬영등을 준비하고 장비 세팅을 해야 하니 좀 힘들죠.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니 늘 잠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불평 하는 건 아니에요.^^

Q. 동아리 활동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아침방송(명상)은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할 계획이구요. UCC 대회도 준비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원 한명 한명이 꿈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의논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시야를 더 넓히기 위해서 방학 때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뮤지컬이나 연극도 함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채워나가려고 해요.



〈아침방송을 하는 방송부원들〉

Q. 다른 동아리와 다른 특징과 장점은 뭐가 있나요?

A. 장점은 일단 훈훈한 방송부장이 있다는 거?ㅋㅋ 농담이구요. 저희 동아리 특징은 매일 생방송을 함께 하다보니 동아리 부원끼리도 되게 친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 또 여신 같은 선생님이 저희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라는 것(?)도 저희 동아리 장점이 랍니다.

Q. 동아리 활동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동아리 활동시간에는 주로 저희 동아리 부원들 진로에 대해 의논을 하고 방송 장비 설치와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각자가 해보고 싶은 아침 방송 연습과 앞으로 하게 될 외부 활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기가 꿈인 부원들이 많아서 한명씩 독백 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Q. 대아고에는 다른 동아리들도 많은데 이 동아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제 꿈이 배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방송부를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저희 부장 선배님이 엄청 능력 있고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확 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부장자리를 맡게 되었으니 작년 부장 선배님처럼 멋진 부장이 되려구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대아고 플래시몹〉

[취재/ 이우진(대아고2)기자]

[SNS 뜨거운감재]

고등래퍼 장용준 그리고 양홍원 하차 논란

TV 일반인 출연자,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2월 10일 처음 방영 된 Mnet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는 아이돌 그룹 NCT드림의 멤버 마크와 MC그리로 불리는 김구라씨의 아들 김동현의 출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1회 방송에서 MC그리나 마크 보다 더 화제의 중심의 선 학생이 있었다. 바로 장용준이다.

장용준은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랩 실력을 뽑내며 스웬스의 극찬을 받았다.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방송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장제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명 '금수저'로 주목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용준이 다니는 세인트폴 국제 학교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장용준과 장제원은 각종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용준이 '문헝스'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흡연과 음주, 과거 연행 등이 알려지면서 환호는 순간 비난이 되어 버렸다. 그 후 그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바른정당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SNS에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장용준은 '고등래퍼'에서 곧바로 하차했다.

2회 방송에서는 Young B로 활동하는 래퍼 양홍원이 돋보였다. 양홍원은 '쇼미더머니' 시즌 4와 5에 출연해 자신의 실력을 뽐냈고, '고등래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지에 응답하듯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하지만 양홍원 역시 방송 후 장용준처럼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다. 과거 절도 의혹과 일진설, 그리고 음주와 흡연으로 SNS를 뜨겁게 만들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등래퍼' 제작진은 양홍원의 출연을 강행했다. 양홍원과 장용준 둘 다 사생활로 문제가 되었는데 왜 장용준은 하차시키고 양홍원은 반대의 결정을 한 것일까?

'고등래퍼' 측은 장용준이 나오는 방송분을 모두 모자이크와 통편집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양홍원의 경우는 달랐다. 하차는커녕 '양홍원이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양홍원을 감쌀 뿐 만 아니라 래퍼의 꿈을 갖게 된 이후로는 본인 실수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며 양홍원에게 면죄부 방송 편집까지 제공해 줬다.

'고등래퍼' 측은 두 참가자에 대한 완전 다른 대응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시청자와 네티즌

들을 납득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고등래퍼' 측은 "일반인 출연자 하차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방송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고등래퍼' 측은 이런 일반인 출연자들의 하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장용준, 양홍원논란으로 방송출연자들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논쟁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일이 범죄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또는 범죄가 있었다 해도 합당한 처벌이 완료되었음에도 그것이 하차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또한 어느정도까지가 방송하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주장이 오가고 있다.

고등래퍼는 고등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문화를 '힙합'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기획이다. 따라서 출연자들의 실력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보다 과거 말과 행동, 일탈과 실수가 더 주목받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방송 제작진의 출연자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 이영빈(명신고2)기자]



[현장포커스]

위험한 등굣길, 왜 대책이 없는가? 동명중, 고등학교 비오는 날 위험천만한 등교

진주 동명중, 고등학교의 등굣길 풍경이다. 학교 후문쪽은 비가 오는 날이면 좁은 외길이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의 승용차와 등교하는 학생들로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다. 가끔씩 접촉사고와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진주 동명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2천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한다. 정문쪽은 그나마 2차

선 도로로 되어 있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도 수많은 학생들이 날마다 등교를 하는 길임에도 인도가 없다. 충분히 인도를 만들 수 있는 도로 폭임에도 원인인지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후문쪽은 심각하다. 1차로의 좁은 농로와도 같은 진입로가 학교 개교 당시와 전혀 다름없이 수많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로 이용되고 있다. 인도는 고사



하고 도로 자체가 좁아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엔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만일 비라도 내리는 날엔 위험천만한 광경들이 벌어진다.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승용차들이 줄을 잇고 그 차들이 학교 후문에서 다시 돌아 나오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진입하는 차와 나가는 차들이 엉켜서 북새통을 이룬다. 결국 항상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 지나가는 승용차들로 한 발걸음 옮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집 한 두 채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냇가에 다리를 놓는다.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2천여명이 날마다 등하교를 하는 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십 수년째 계속 되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직접 당사자가 힘없는 아이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직 큰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학교가

아니라 상가나 주택가등 이었다면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어른들이 또한 그것을 계속 두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히고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등하교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적인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후문 진입로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방치하고 내 버려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큰 사고가 터져야 들여다보고 바로 잡기엔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안전사고들을 많이 겪었다. 하루빨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되길 바란다.

[필통편집국]



〈동명고의 후문 등굣길은 200미터의 좁은 1차선 농로로 되어 있다〉

[카드뉴스]

“성인은 NO”...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 논란

[뉴스출처/ 동아일보 2017.3.16]

1

"성인은 NO"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

2

최근 서울 신논현, 이태원, 광주 중창로, 충남 홍성에서 성인 사용이 불가능한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1400원짜리 친환경소재 콘돔을 2개에 100원에 팔고 있죠. 하루 평균 20여 명이 이 자판기에서 콘돔을 구입합니다. 수익금은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에 기부됩니다.

3

콘돔 판매회사인 사회적 기업 ㈜인스팅터스는 콘돔, 성기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

"누구나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 편견에 따라 피임기구 접근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 박진아 인스팅터스 공동대표 -

4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 중 절반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청소년의 21.4%는 임신을 하죠.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실태조사)

피임기구 구매를 꺼려 비닐봉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성관계를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피임기구의 사용을 적극 교육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인스팅터스의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 설치 목적

1.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콘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2. 당장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
3. 콘돔은 더 이상 성인용품이 아니라고 청소년에게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

6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있죠. 콘돔을 더 팔기 위한 상술 아니냐. 자칫 피임기구를 장려하는 게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7

"성문화가 훨씬 개방된 해외에서도 정부가 피임기구에 관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청소년 혼숙을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피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다."

- 여성가족부 -

8

"보수적인 성인식 탓에 성 문제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가 도시에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콘돔자판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광주여성만우회 김효경 사무국장의 언론 인터뷰)

여성가족부

학교의 선후배 관계. 선후배는 갑이고 후배는 봉인가?

선배와 후배사이에는 군기보다 존중이 필요하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새학기의 설렘과 많은 다짐을 안고 학교로 간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학교의 한 구석에는 이 설렘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다. 바로 선후배 간의 마찰이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 선후배간의 금품갈취 등이 한 두 살, 선배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공공연한 갑질이 일어나곤 한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후배가 선배를 보지 못했음에도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혼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수능과 졸업시즌이 되면 수능 파티와 졸업 파티를 명목으로 후배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걷게 하고 파티 때 할 노래와 춤을 준비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을 때로는 선후배의 기강으로 또는 학교의 전통으로 여겨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새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는 동아리모집으로 떠들썩해진다.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생들에게 요즘 공부만큼이나 교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동아리 내에서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쌓기도 하고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동아리는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내활동이 되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인상을 찌푸릴만 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른바 동아리 내에서의 선배들의 횡포, 속된 말로 '갑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몇몇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후배간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몇몇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거나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생일을 챙기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생일을 챙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만, 선배들의 눈치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생일선물을 사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받은 상금을 후배들과 의논하지 않고 선배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적어도 학교에서 만큼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그것이 교육일 것이다. 동아리에서 선후배가 갑을 관계가 되어선 곤란하다. 선배라는 것이 작은 권력이 되고 그것으로 후배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는다면 그 또한 우리 사회의 '갑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학창시절은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다. 선배가 갑이고 후배가 봉이 아니라 함께 존중하며 사랑과 정을 쌓아가는 선후배가 되었으면 한다. 새학기를 맞은 선배들이여, 선배에게 필요한 건 갑질이 아니라 존중과 후배사랑이다.

[취재/ 전석용(명신고2)기자]

용돈? 부족해! 항상 부족해!

용돈 부족, 알바보다는 용돈기입장이 더 필요하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학생들. 용돈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엄마를 부르는 학생들이다. 대체 용돈을 얼마정도를 받길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한 달 평균 용돈 금액과 용돈을 주로 어떻게 쓰는지, 진주의 고등학교생 40여명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10여명 정도는 필요할 때 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다고 답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친구들과 놀러갈 때, 교통비, 밥값, 그리고 쇼핑을 할 때였다. 부모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쓰는 학생들은 보통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는 교통비, 밥값을 포함해 8~12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학생이 20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외의 학생들은 교통비, 밥값을 제외하고 한 달에 2만원부터 6만원 사이의 돈을 받거나 1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다고 했다.

평균적으로 고등학교생들이 받는 용돈의 금액은 교통비, 밥값 포함 10만원 정도다. 고등학교생들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1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모자란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용돈을 무엇을 하는데 쓰는지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교통비, 밥값을 제외하고 용돈을 받으면 간식을 사먹는데 쓰거나 친구들과 놀러갈 때 그리고 옷을 사는데,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한다. 친구들과 놀러갈 때마다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2~3만원 선이다. 같이 쇼핑이라도 하면서 옷까지 한 두 벌 사게 되면 6만원 이상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리기도 한다. 간식도 자주 사먹게 되면 일주일만 만 원 이상을 쉽게 써버리게 된다며 부족한 용돈을 하소연 하기도 한다. 또 게임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엔 아이템을 사는데 용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 가운데 절반은 개인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가족부가 3월 7일 발표한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는 "부모(보호자)가 주는 용돈으로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응답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다"는 답변은 각각 3.8%, 10.9%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3.6%, 고등학교생의 18.1%로 전체 중고등학교생의 11.3%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6.2%에 달한 반면 일반계고 재학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4.2%에 그쳤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높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전단지 배포나 패스트푸드점도 각각 6.9%, 6.1%의 비율을 보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5.5%에 그쳤다.

학생들의 용돈사용목적을 보면 용돈을 허투로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용돈은 항상 부족하기만 한 걸까? 많은 학생들은 "요새 물건들이 다 비싸..."라며 요즘 어려워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의식한 답을 내놓았다. 그 외엔 "친구랑 몇 번 놀면 용돈은 어느새 다 사라진다." "내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더



라도 총동적으로 뭐든 사다 보니까 용돈 부족하던데?"라는 답들이 돌아왔다.

쓰다보면 남을 때보다 부족할 때가 더 많은 학생들의 용돈, 무조건 용돈을 더 올려달라 하고 부족하다며 떼쓰거나 알바 자리를 알아보기도만 용돈기입장을 쓰는 습관을 길러 자신의 용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취재/ 이자은(경해여고1)기자]

연암도서관, 난 고양이 만나러 간다

도서관에서 만난 길고양이 이야기



고양이와 도서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련한 조합이다. 진주 연암도서관에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말이 2월 13일과 16일, 도서관을 찾았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였다.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도서관 근처에 나타났다. 익숙한 몸놀림으로 가방에서 사료통을 꺼내어 밥그릇에 담으며 "비شى야"하고 부르자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 나왔다. 바로 그 고양이다.

3년 전 새끼 고양이 6마리가 연암도서관에 버려졌다. 3마리는 분양되어 누구에게나 보내졌고 나머지 3마리는 연암도서관에서 길렀다고 한다. 현재도 연암도서관에 사는 고양이는 3마리다. 수컷인 비شى야와 비شى이 여동생 비순이, 또 다른 수컷은 뽀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들 고양이는 오래전 그 날부터 도서관에서 기르지는 않는다. 길고양이나 들고양이, 유기묘 등 주인이 없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소위 '캣맘'들이 고양이를 돌본다고 한다. '캣맘'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추운 겨울을 위해 빈 박스로 집을 지어준다. "길냥이 집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즉시 치우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박스 위에는 따뜻한 당부 글이 적혀 있다.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다친 고양이를 자비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캣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캣맘과 길고양이를 금지않은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싫거나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다닌다는 이유 등도 더해진단다.

도서관에서 만난 캣맘은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 박스를 버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고양이를 담뱃불로 지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며 "길고양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길고양이 문제는 분명 작은 사회문제가기도 하다. 서로 반대된 주장이지만 또 각각 그럴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차이보다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길고양이를 바라보면 박스위의 굴뚝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생긴다.

[취재/ 김해천(동명고2)기자]

[GO발! 이의있습니다①] 학교의 두발규제



두발 자유! 그것이 그렇게 학생답지 못한 겁니까?



대부분의 십대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다. 그 중 헤어스타일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남자는 머리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두발규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있는 생활지도 날에 두발을 걸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른 머리와 작별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헤어스타일만큼은 유일한 자의식 표현, 아니 자존심의 영역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편법을 쓰며 선생님들의 눈초리를 피해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두발과 학업의 연관성?

학교에서 두발 규제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하라'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가 길다고,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까? 전

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들의 착각이 학생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두발? 저희도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과연 머리에 미쳐 공부를 포기하겠어요? 오히려 외모에 민감할 때라 멋 부리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심하게 막는 학교나 선생님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학생들의 머리에 자유를 허한다고 꼭 학업에 쏟는 열정이 약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두발 규정으로 인해 머리를 규제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대한 반항심만 고조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두발규정과 학생인권

학생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단속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우선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학교 규칙보다 위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학생은 머리가 단정해야 해...' 등의 어른들의 고정된 인식 속에 커온 성장 배경과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낮은 인권의식 때문에 학생들은 두발 규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매모호한 규정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두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불만이 많다. 분명 학교 규정대로 잘라 왔지만 단속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진주시 모 학교의 두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앞머리는 눈썹까지로 하고,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으며, 구레나룻 및 염색은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투블럭을 통한 헤어스타일로 단속을 비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자 규정에 한 줄을 더 추가시켰다. [유행을 추구한 특수한 머리형(일명 '투블럭'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학생들은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극단적인 느낌마저 갖게 되지 않았을까?

두발자유, 그리고 학생답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학생들의 두발문제는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9년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 속엔 두발 자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

는 학교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21세기는 개성의 시대다.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고 누구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자유 또한 있다. 두발도 그렇다. 학생들도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또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발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질서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두발 규제는 학생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하다.



한 학생이 학교 규칙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어 학생회에 건의를 했는데 당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소리는 "학교가 싫으면 전학을 가라."라는 식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주체다. 그들의 이야기와 생각도 중요하다. 또한 정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여전히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들의 발전적인 고민도 있었으면 한다.

[취재/ 이장우(동명고2)기자]

[GO발! 이의있습니다②] 동아리 활동도 교육이다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가요? 삼현여고엔 동아리 지원금이 없다

지루한 학교생활 도중 급식시간 다음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아리 시간이다. 동아리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때가 많다. 동아리 활동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삼현여자고등학교는 대부분 동아리 활동비용을 학생의 사비로 해결한다.

축제 준비금액 3만원을 제외하면 학교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원이 없으니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회비 등의 형식으로 동아리에 내고 그것으로 기본적인 운영을 한다. 물론 보통의 동아리들은 축제 때를 제외하면 돈이 필요한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실험 활동이나 외부 활동, 공연이 있는 동아리는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 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동아리활동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고 교육의 일부일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교과활동이나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당연히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원할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교실과 교구가 있어야 하고 냉난방시설이나 책걸상에 예산이 필요하듯 동아리 활동에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것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 또한 당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동아리들이 꼭 필요한 비용은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분명 동아리 활동도 교육의 일부분이고 더구나 공식적인 학교내 활동이니 말이다.



[각 동아리들의 활동모습]

삼현여고 동아리인 연극부, 의상디자인&모델부, 댄스부 세 동아리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나요?

○연극 : 축제 때 전 동아리에 3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걸 제외하면 하나도 없어요.
○의상 : 다른 동아리 지원금에서 남은걸 준다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댄스 : 지원금을 받은 적도 없고 학교에서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 활동에 돈이 필요하나요?

○연극 : 주로 소품에 돈이 제일 많이 들죠. 의상, 분장, 세트도 전부 돈이죠.
○의상 : 한복 대여, 의상을 제작할 원단, 액세서리, 신발. 다 학생들 개인이 사야 해요.
○댄스 : 주로 의상? 춤 출 때 입을 옷을 맞추니까요.

1년 동안 쓰는 돈?

○연극 : 2016년 한 해 동안 약 90만원을 썼어요. 소품들이 다 비싸니까.
○의상 : 전체는 모르겠고 개인으로 최소 5~10만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댄스 : 그때 그때 회비를 모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교외활동이 있나요?

○연극 : 개천예술제 연극대회에 나가요. 그 대회를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작년엔 7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대회도 나가고 돈도 얻고 1석 2조죠. 물론 지원금을 받아도 늘 부족합니다.
○의상 : 없어요.

이처럼 학생들은 동아리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학교에서 지원이 나온다면 비용이 적더라도 학교가 지원해주고 이끌어준다는 생각에 든든해지지 않을까? 어쩌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신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일지도 모른다.

○댄스 : 댄스대회에 나가요. 잘해서 상금을 받으면 그걸 이용하기도 하죠.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연극 : 한 달 회비를 1인당 3000원씩 걷어요. 그래도 회비보다는 대회 지원금 덕을 많이 보죠. 지원금이 없었다면 모두 사비로 해결했을 테니까요.
○의상 : 모두 사비, 올해부터는 달마다 2000~3000원씩 회비를 걷을까 생각중이에요.
○댄스 : 주로 대회 상금. 부족하면 사비로 충당하죠.

학교에 건의해본 적 있나요?

○연극 : 건의하기보다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냐고 여쭙본 적이 있었는데 연극부를 지원해주면 다른 동아리 전체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요.
○의상 : 없을 걸요?
○댄스 : 없어요.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되는 방향?

○연극 : 많은 지원금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외부활동이 있는 동아리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최소한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면.
○의상 : 다 똑같은 않지만 예산 지원이 필요한 동아리들이 많다고 봐요. 동아리 활동은 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활동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댄스 : 특히 교외활동이나 공연이 있는 동아리는 어느 정도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취재/ 주예진(삼현여고2)기자]

[JOB을 잡아라] 플로리스트 비밀의화원 이수진 대표

아름답고 예술적인 전문직업 미래 10대 유망직종 플로리스트

꽃은 인테리어 효과로 허전한 공간을 화사하게 바꿔주고,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를 선물해주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한다. 최근 SNS에 다량의 꽃 사진들이 게재되며 꽃을 꾸미는 이들에게도 관심이 커졌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전문직업으로 인기가 높고 미래 10대 유망직종으로 관심이 높은 '플로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플로리스트란?



플로리스트는 꽃을 뜻하는 플로스(Flos)와 전문인 또는 예술가를 나타내는 점미사 이스트(ist)의 합성어로 '꽃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을 말합니다.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을 꾸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능력을 활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이 직업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으로 꽃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플로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분야는 꽃집 창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꽃을 배달하는 온라인 쇼핑몰(웨딩부케, 꽃 상자, 꽃다발 등)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취미반이나 플로리스트 양성과정의 플라워 레슨과 파티나 웨딩 스타일링의 한 분야인 플라워 스타일링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다.

INTERVIEW 비밀의 화원 florist 이수진

Q.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화원이라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나이는 서른 여, 비밀입니다. 플로리스트 공부를 하고 꽃집을 운영한지도 벌써 6년차에 접어들었네요.

Q.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질이 있을까요?

A. 성실함이죠! 무엇보다도 부지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손재주라고 생각할 텐데 손재주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실함만 있다면 뭐든지 따라온다고 봅니다.



Q. 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A. 내 열정을 다해서 꽃을 아름답게 만든 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봐요. 꽃으로써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지요. 꽃만 봤을 땐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되잖아요. 생계라고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해요. 게을리하면 안 되구요. 뒤처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유행에 민감해야하고, 비수기, 성수기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야하고요.

Q. 플로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니다.

A. 전공은 꽃집이 아니고 간호 쪽인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우연히 꽃집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꽃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Q. 플로리스트의 수입은?

A.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같이 잘하면 엄청 청나죠! 대기업정도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하면 수입은 따라오는 거죠.

Q. 플로리스트의 하루는?

A. 다른 가게랑 좀 다를 텐데요... 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 일과가 끝나면 손님과 상담하고 시즌에는 밥을 새로,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를 반복해요. 쉬는 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까지도 꽃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하니 아마 전 좀 미쳤나봐요.^^

Q. 이달의 꽃, 상황 별 추천 꽃이 있다면?

A. 이달의 꽃은 목화, 안개, 프리지아인데요. 목화는 도깨비 때문에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프리지아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인데 졸업, 입학시즌에 딱 맞다고 보면 되겠죠? 싸웠을 때는 사과라는 꽃말을 가진 하얀신스, 프리포즈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의 리시안서스, 천일홍, 시네신스가 있어요. 솔직히 꽃은 꽃말보다 예쁜 게 최고입니다! 계절별 꽃이 많아서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시기별로 예쁜 꽃을

사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Q. 비밀의 화원 SNS에 사진이 엄청 많던데요?

A. 꽃이 유행하는 이유는 역시 SNS겠조? 보였을 때 예쁜 것. 지금 비밀의 화원 블로그는 꽃 사진만 7000장이 넘거든요, 5년 동안 변함없이 올렸으니 까요. 지금의 비밀의 화원을 있게 해준 것은 꾸준함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에 모두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관리자는 저 혼자예요. 전화하면서, 꽃 만들면서 한 장씩 올리다보니 사진이 많은데 그 덕에 남들과 손이 달라요. 벌써 손 관절에 무리가 왔더라고요.

Q.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앉아 있지 말고 무조건! 실전에, 현장에 나가서 해보는 것도 좋고 자격증부터 따보는 것도 괜찮고요. 플로리스트자격증보다는 화예기능사자격증을 추천해요. 기본부터 틀을 잡아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물론 없어도 창업은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국가고시라서 딸 때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니까 꽃집 알바를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해보면 힘들어서 포기할 많이 해요.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자격증 따서 꽃집 차리겠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공부해보세요. 꽃집은 예쁘기 만한 곳이 아닙니다. 힘든 건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카톡으로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sujini82)

기술자에서 예술가로... 전문직으로 급성장 중



플로리스트는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문 직종이다.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업인으로 향후 전망이 밝은 직업 중 하나다. 단순히 꽃을 포장하고 장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리스트의 활동 영역은 최근 점차 넓어지고 있다.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의 내부 장식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를 구축하는데도 플로리스트의 손

길이 들어가고 있다.

◇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려면

좋은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식물의 학명과 꽃의 종류, 꽃말 등 폭넓은 원에 지식이 요구된다. 고객의 마음에 들도록 아름답게 포장하는 능력, 꽃의 용도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장식할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하다. 꽃 장식품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꽃의 재배·유통·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 교육 과정은

4년제 대학에는 플로리스트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없다. 주로 전문대나 직업학교·전문학원에서 플로리스트를 양

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꽃다발 디자인, 구조물 디자인, 파티플라워, 부케 디자인, 식물 심기, 동양꽃꽂이 등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플로리스트 학과 이외에도 원예학과·원예육종학과·환경원예학과·식물자원학과·농학과·응용식물학과·생명자원학과 등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플로리스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플로리스트협회(<http://www.kflorist.or.kr>) 등 민간협회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자격증 취득은



플로리스트의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화훼장식기능사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화훼장식기능사 시험은 별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있으며 응시료는 각각 필기 1만1500원, 실기 2만7000원이다. 민간협회인 한국플로리스트협회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플로리스트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은 총 3급으로 구성돼 있다.

◇ 향후 전망은

조경·꽃장식 분야는 대중화가 되고 있어 플로리스트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늘고 있다. 화훼 관련 상품들은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화훼를 이용한 장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미적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이 떠오르면서 그린인테리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실내외 장식을 원하는 학교나 사무실·호텔·백화점이 늘고 있다. 또 파티플래너 및 이벤트와 연관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조경회사·골프회사·화훼종묘회사·화훼육묘회사·화훼경매시장 등에 취업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화훼유통업, 꽃꽂이학원의 경영, 화훼관련 경기대회 관리 및 심사위원, 각종 교육기관의 강사 등으로 종사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J.S.E.I. 진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 한다

J.S.E.I. 소개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 성적 차별, 주입식 교육 등의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의견은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있다. JSEI (Jinju Student Education

Innovation)가 바로 그것. 현재 대표인 김인환 학생을 중심으로 28명의 학생들이 JSEI에서 '현행 교육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교육부나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JSEI는 총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인사, 계획 등을 담당하며 다른 부서를 총괄하는 사무국, 정책기획 및 건의안 작성을 담당하는 정책기획팀,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팀,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특정 부서에 속하지 않고, 회의 참여나 활동의 의무가 비교적 적은 '파랑새' 제도도 있다.

“교육정책,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J.S.E.I. 대표 김인환입니다.

요 근래에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에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마음을 다시 한 번 찾아볼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집어넣고 모든 시험마다 등수를 매깁니다. 그때마다 주위 친구들은 등수를 물으며 서로 더 높은 등수를 받기위해 시기하고 질투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부당하고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라도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견뎌내 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TV에 비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분들 믿으면서 서서히 교육제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라고 생각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훗날 어른이 되었을때 우리의 교육이 지금처럼 절박할 것 같지 않기에, 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J.S.E.I. 이라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단체를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일이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좋은 의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성과가 눈에 크게 띄지 않아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S.E.I. 사무국장이자 진주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김인환 학생과 함께 '진주 청소년 교육 개혁 단체-J.S.E.I.'의 1기 멤버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 때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는 청소년 단체가 많은데 도대체 왜 진주는 없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진주에서도 학생이 직접 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생각이 지금의 J.S.E.I.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활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청소년인 우리의 목소리가 학교나 교육당국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뀔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J. S. E. I.

단원 및 임원 모집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영수 위주, 성적 차별, 주입식 교육 등의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의 의견은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집분야

- 정책기획부(임원) : 교육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정책 기획
- 취재부(임원) : 취재 및 설문조사, 자료수집
- 홍보부(임원) :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 파랑새(단원) : 회의 선택 참여 및 홍보위주 활동

모집대상

-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알고 싶은 청소년
- 잘못된 교육체제를 바꾸고 싶은 청소년
- 00년생 이후 출생자
- 진주 거주 및 재학중인 청소년 (사전은 폐쇄 부탁드립니다)

지원문의

- facebook Page : J.S.E.I.-youth education
- 대표 김인환 : 010.4915.6580

[상식뽕개기]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안경 이야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잘못된 의학상식이 인터넷이나 구전을 통해 퍼져 나가 사실인양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안경 착용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안경을 쓰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한다' 등 검증되지 않은 상식이 난무한다. 안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안경을 쓰면 눈이 점점 더 나빠진다?

▲만약 시력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안경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굴절력이 변했기 때문이다. 굴절력은 나이에 따라, 근시나 원시의 종류에 따라 변한다. 대개 태어나서부터 학동기 전까지는 원시이고, 성장하면서 정시를 거쳐 근시를 가진 후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진다고보다, 연령 변화에 따른 굴절력 변화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시력은 유전된다?

▲부모가 안경을 끼면 대부분 자녀들이 안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된다. 시력은 100% 유전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구의 모양이나 해부 구조 역시 부모의 것과 유사하다고 볼 때, 부모가 안경을 쓴다면 자녀 역시 안경을 쓰게 될 확률은 높다.

-안경을 한번 쓰면 계속 써야 한다?

▲안과에서 조절마비검사를 통해 근시가 확인되거나, 의미가 있는 난시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안경을 써야 한다. 난시는 성장하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근시의 경우도 키의 성장과 함께 안구의 길이도 성장하면서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까운 안과를 찾아 굴절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눈 사이가 멀어지거나 눈이 들어간다?

▲안경을 착용하면 눈이 왕눈이처럼 더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움

푹 들어가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내가 원시안경(돋보기 안경)을 착용했는지, 근시안경(오목렌즈 안경)을 착용했는지에 따라 달라 보이는 착시현상이다. 간혹 굴절력과 관련 있는 사시가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안경을 착용해야 사시각이 줄어들어 눈이 제 위치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사시와 연관된 안경착용 말고는 눈 사이 간격이 멀어지거나 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눈이 더 나빠진다?

▲안경을 써야 하는 굴절이상일 경우 안경을 벗었을 때 잘 보이지 않아 눈은 스스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절을 하게 된다. 한창 성장기에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 학동기 연령의 어린이는 안경을 벗었을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조절을 해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도 조절을 풀지 못하고 마치 근시가 진행한 것처럼 느껴 시력

이 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도수, 즉 굴절이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안경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TV를 너무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TV를 본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시력이 나빠도 부모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한다. TV를 너무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졌다고 안경원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안경을 써야 할 단계를 넘겨오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마이너스다?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시력이 굉장히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다만 마이너스 렌즈만 있을 뿐이다. 마이너

스는 근시를 뜻하고 플러스는 원시를 말한다. 마이너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목렌즈를 쓰고 반대인 경우에는 볼록렌즈, 즉 돋보기를 쓴다. 또, 마이너스 뒤에 붙는 수치가 커질수록 눈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작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눈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럴 때 잘못 알고 있는 눈에 대한 상식으로 눈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경을 낀 사람이라면 급격 3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시력을 잰 후 안경의 도수를 조절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오래도록 쓰는 것은 눈 건강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통편집국]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란

To. 란

후리 란~ ㅎㅎ 존존이 후리구~
후선 생일ㄷㄷ임.. 하주 3월10일 니 생일이라고 광고를 하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안 잊어먹고 챙겨주는 건 니뿐이지?? ㅋㅋ ㅎㅎ
진짜 니랑 같은 반 되고 싶었는데 이번에 되서 넘 좋고~
1년 무난하게 좀 보내자 제발. 그리고 카톡하면 답 좀 빨리하라고 이 XX야. ㅎㅎ ㅎㅎ
내 맘 다 말지? ㅅㄹㅎ 란 ♥

-from 익명.

To.우리반 반장



생애 첫 반장을 축하한다~
반장아! 니가 반장이 되어 나도 참 기쁘구나. 반장 된 이후로부터 긴장한 거 티나던데... 너무 부당 갖지마.
반장아~ 선생님도 후리도 너에게 기대 따위 하지 않아도~
반장아 반장아~반장아~ 이쁜 반장아. 꽃다운 나이 심팔세인 후리를 잘 이끌어 가줄거라 믿어... 반장아~ 1년 잘 부탁해... 반장아! 2반 반장 올트라캡짱~!

-from 부설고 2-2반 친구가

To. 1학년 10반



안녕 애들아~ 후리 희원. 리나야. 기호가 생겨서 이렇게 필통에 편지를 쓰게 됐어!
작년 후리 10반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다 각자 반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도 서로 각반에서 잘 해낼 수 있는지 걱정이고 후리 10반이랑 다른 분위기의 반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 돼... 정말 예전 후리 10반만큼 좋은 반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다들 지내면서 보면 꼭 인싸하고 2016년 너네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 수능 끝나면 1학년 10반 다시 모이지♡
+이윤정선생님도 1학년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From. 희원. 리나

To. 하린

하린아 나 너랑 후리도록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어 자주 만나고 꾸준히 연락하자!!

-from. 익명

To. 하니, 상지



안녕 하니야 상지니!
후리 언제 처음 친구 먹었는지 기억나지. 그 언제더라~ 옛날 세종북원 때 인거 같다. 상환니후일 짓기 몇 년 전에 ㅋㅋㅋㅋ

초등학교도 같은 곳 가고 무~ 초딩 이후로 같은 학교 된 적은 없지만 친하긴 했잖아. 초6때 다 같이 같은 반 되고 지금까지 하니 놀았지. 해주 주말마다 같이 피서방도 가고 저번에 서울도 셋이서 같이 다녀왔고~ 한화집에서 밤에 같이 하자르도 하고 ㅋㅋㅋㅋ

하~ 다음에 서울 갈 때는 좀 계획 좀 확실하게 하자..ㅋㅋ 무계혁으로 포켓몬고나 해리고 앉아 있고ㅋㅋㅋㅋㅋ고 상수 수능치고 연하 후딱 하고 당면 제주도도 가아지..ㅋㅋ

하~ 며칠 후 또 놀게 되는데. 편지 쓰니까 겁나 볼거리고 쪽팔리지만!

후리후정 변치만길 바라~ 십년지기 ㅅㅅㅅ 사랑한다~♡

-from. 정호

하~ 이거 다올때쯤이면 니 생일 다 지났고도 남았겠지만 이거 니한테 쓰는 명목은 생일임ㅋㅋㅋㅋ
하침 내 친구중에 필통 기자 해 한명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써본다.ㅋㅋㅋ 내 알투 보면 무슨하린인지 알지? 내 맞다고 물어봐 후리만 해라진짜 실망할거다. 여튼 이거 쓰는 후리부터 신문 나와서 니가 이 글 볼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쓸게.. ㅅ ㅅ
올해부터 나는 과중가고 내는 문과라서 교집합이 1도 없어졌다가ㅋㅋㅋㅋㅋ중 하신제? 보고싶으면 방티 보러올 때 나 보러 온다~ 하냐면 말글..
니 욕심이 많아가지고. 과중 안 그래도 바빠텐데 2학년장도 맡아가치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다. 진짜로ㅋㅋㅋㅋㅋ 그래도 시간 내서 놀러가야 한다 알겠지??? 시험 끝나면

한번씩 놀러. ㅅ ㅅ 문과라고 버리지 마라. ㅅ ㅅ ㅅ
생일 한창 지났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날은 3월 3일이니까 어찌됐든 생축탕. 여기사가 니 글목사진 몽땅 올려 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니가 지집을 못갈 거 같으니까~ 해라해줄게! 가끔씩 얼굴보로 7번 놀러 갈게~ 잔다고 끄지라 하지 말고 소식은 말리고 살자 임하~

볼거리는 말 못하는 거 알지..? 힘들어 죽겠으면 연락하고 하냐어도 후든가 말하서 해라 이제 그만 적으라 ㅅ ㅅ

하~ 마지막으로 과중이라고 내신 던지지 마라. 고하 이과 후려 잡힐성ㅋ

-From. 이쁜 하린이♡

To. 송다리



송다리 여러분 안녕하세용! ㅎㅎ 저는 송다리 24기 이름 새 22기 전봉정입니다.
거의 두달? 동안 맥자 만든다고 수고 많았구용. 시화전 3일 동안 옥력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뒷풀이도 정말 재미있었어용. ㅎㅎ 선배님들께서 밥 사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당.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과 시화전 했으면 좋겠어용!! 지원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깐용. 동아리 망하면 안되용!! ㅅ ㅅ 여러분 사랑합니당♡송다리 파이팅!!

-From. 송다리 24기 전봉정

To. 한세



한세야 안녕~ㅋㅋㅋ
먼저 대하고 입학 한 거 정말 축하한다.ㅋㅋㅋ 난 전에 니가 진고 생각하고 있다가 길래. 한화다라 진고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하에 와서 정말 반갑구날ㅋㅋㅋ 만다면 맛 나는거 사줄게~

같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니가 선배노릇 잘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하고 온김에 팁하나 줄게..ㅋㅋㅋ어리더 짧게 물어봐. ㅅ ㅅ 12mm가 머리 꼭꼭 만지기에 느낌이 좋더라... ㅅ ㅅ (내 경험당이야..)

하루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린이랑도 화해하~ 하! 대하고 기도회 평일 8후 6시 10분~6시 35분까지 1학년 11반 옆 미술실에서 하니까 꼭 참여해라ㅋㅋㅋ 그렇지안~

-From. 철환

Dear 기백유진

안녕 이과냄새 김유진 난 문과항기 강주현이야...
문과내음이라고 할라했는데 참을게~ 얼마전에 편지 썼는데 우린 말이 많으니까 또 쓸게..
우린 생일이 빠른 밀레니엄 베이비들이라 이거 볼 때쯤 민중이 나왔을지도 몰라~
니 생일이나 내 생일이나 너무 빨라서 애매한 시기에 있으니까 ~ 서로 챙겨주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까야..
그런 의미로 생일 한번 더 축하해^^
처음 본 게 언제지.. 하여튼 그때 저게 말로만 듣던 과물유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널 존경해~~ 고대가지. 지훈짱

만나야지. 민씨는 내꺼야.
우리 대학 나오면 세무 알지? 즉흥여행이다. 바로 떠나는 걸로! 벌써 신난다... 1년 반만 열심히 살면
즐길 일만 남았으니까~ 아프지 말고 재밌게 남은 학창시절 보내고 술 먹으러 가자... 첫 술은 아배랑 먹어야하니깐 두 번째 술 같이 먹자♡
p.s 지금까지 읽으면서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서 서운해 하고 있을 삼현여고 2학년 2반 32번 최여진~ 이제 고2나 됐는데 토기 적짓기 같은 거 그만보고 조신한 숙녀처럼 행동해줘~ 우리 팔리 같이 교단 사자♡
-from 생운주현



나의 주주에게 (ft. 좌니난 MC 으)

오랜만에 다시 편지를 쓴다! 내 생일 이후로 처음 이네. 아마 이 편지 실릴 때는 니 생일이 지난 뒤겠지? 너의 생일을 지금 미리 축하해~ 그리고 늘게 다시 축하해 줄 거야! 우린 이제 민중도 나온 다구! 기양~!
일반과 심반이라니.. 님 멀고.. 가혹해.. 하지만 자주 보자구. 우리 주주! 내가 자주 찾아갈게 키키~ 우린 서울에서도 꿀잼이었고 내 생일 때도 넘나 즐거웠고 아천관 쉬는 시간은 매일 p.a.r.t.y.q(ㄹ)q 생명과학 내진설계. 그냥 우리 같이 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즐거웠음. 키야~ 바이러스까지.. 착착~
우린 너무 유쾌하게 살고 있는 거 같아>>
우리 스무살 되면 여행 고고~! 참주현 기대한다. 지금 당장 서울 명동에서의 그 날로 돌아가고

싶다. ㅅ ㅅ 회림이 모자 사던 그날로.. 니가 인생의 destiny 민섭을 만나기 전 날로..! 작년에 우리 주현 고생 참 많았어... 말 안 해도 알지만.. 올해는 진짜 작년보다 편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길 기도할게..
우리 조금만 참으면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다리자 우리..! 사랑합여♡
p.s. 혼자 속으로 부러워 했을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32번 최여진 구글 최근 검색기록 물방 꼭 지워~ 미래의 담친이 알면 어떡하니 특히 나한테 그만 들리고^^
-from 기양짱꿈 눈모기 북극곰 친구 김유진 이가♡

To. 최준영



하는 형이 한번 써 보라고해서 신문에 글써 본다...ㅋㅋ

중학교 3년 같은 반하고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댄 하쉽게 같은 반이 안됐지만 잘 지내고~~~

술, 담배 좀 끊고. 제발 제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자~ 또 다 보고 싶으면 찾아오고 워 맨날 보겠지만. ㅋㅋㅋㅋㅋ 내 잘생긴 얼굴 많이 봐야지~ ㅅ ㅅ 니가 성격이 좋아서 안 짜투지만! 더 짜투지 말지~ 더는 볼거려서 못 쓸 거 같고 말투로 3년 계속 친하게 지내고 밥도 잘 먹고 학교에서도 잘 놀자 새끼야~!

-From. 잘생긴 한세

